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

교육세미나 보고서

(평가 및 제안)

충현교회 교육연구소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

교육세미나 보고서

(평가 및 제안)

충현교회 교육연구소

'99 교육세미나 자료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지난 6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99 교육세미나 결과가 성실한 정리과정을 거쳐 이렇게 자료집으로 출간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일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집의 출간도 감사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세미나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도와 수고의 땀으로 하나되어 일하신 교육연구소 일꾼들과 교회학교 일꾼들의 헌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이 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일 것입니다.

금번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학교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시는 여러 일꾼들께서는 충현교회 교회학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내일을 내다보면서 소중한 의견들을 심혈을 다해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들이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탁상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의 현장에서 나온 기도의 목소리요 사랑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의견들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는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러한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던 생각들을 모으시고 이것들을 통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가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벅찬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교회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위원들과 발제자들, 대표 토론자들과 참여한 모든 교회학교 일꾼들, 그리고 기도로 지원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9. 8.

위임목사 김 성 관

목차

'99 교육세미나 자료 발간에 감사하며(위임목사 김 성 관)

교육세미나 개요

세미나 순서

주제강의

- 성경에 나타난 신앙교육과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우리나라의 신앙교육(박형용 목사)
- 충현교회의 신앙교육(이승수 목사)

분임토의 내용(각 분과별)

- 교과과정 분과
- 조직 분과
- 교사 분과
- 교재 분과
- 행사 분과
- 재정 분과

실천적 제안

- 교육세미나의 평가와 제안
- 실천을 위한 단계별 제안
- 제안 설명 및 실행계획

교육연구소 세미나 개요

1. 목 적

- ❖ 교육연구소의 지속적이고 유기적이며 연속적인 일을 위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과 이에 따른 계획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 방 향

- ❖ 주제발표와 분임토의를 실시한다.
- ❖ 첫째, 둘째날 모두 주제발표 후 분임토의를 하고, 둘째날은 각 분과 발표 및 전체 토의 시간을 갖는다.

3. 주 제

- ❖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한다.)

4. 주제 발표자

- ❖ 박형용 목사 (성경에 나타난 신앙교육과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우리나라의 신앙교육)
- ❖ 이승수 목사 (충현교회 신앙교육의 어제와 오늘)

5. 분임토의 주제 및 인도자

- 총주제 / 충현교회 교육의 구조조정
- 1) 교과과정(김동석 목사) / 각 단계별 교육목표 및 이에 따른 교과과정에 관해
- 2) 교사(김단용 장로) / 교사자질과 관련하여 교사양성 및 재교육에 관해
- 3) 교재(정갑신 목사) / 충현교회에 적합한 복음적인 교재는 무엇인가, 교육 기자재에 관해
- 4) 조직(권상현 목사) / 부서별 특성에 따른 조직 및 편제
- 5) 재정(윤성철 장로) / 각 교육 단계에 따른 적합한 예산에 관해
- 6) 행사(서동석 장로) /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 단계별 바람직한 행사에 관해

6. 분임토의 그룹

- ❖ 참가대상자 중에서 하되 사전에 미리 정한다.
- ❖ 분임토의 인도자는 분임토의 주제에 정통한 사람으로 한다.

7. 참가대상자

- ❖ 교회학교 전 교사 (약 1000명)

8. 일 시

- ❖ 6월 28, 29일(월, 화) : 오후 6시 30분~10시

9. 장 소

❖ 본당 및 교육관 2,3층

10. 조 직

- 1) 준비위원장 / 이병학 장로 (교육연구소 부소장) 지 도 : 김희수 목사
- 2) 집행위원 / 최대원 장로(제2교육위원장)
남선우 장로(제1교육위원장)
정갑신 목사(제1교육위 지도)
김동하 목사(제2교육위 지도)
김동석 목사(제3교육위 지도)
- 3) 준비위원 / 23개 교회학교 각 부장 장로
윤명식, 마성락, 김정철, 손동운, 엄필성, 강은원, 강모용, 서동석, 김종구, 최무길, 김천
채, 손경수, 이병옥, 이인상, 임무천, 이종섭, 진홍용, 김단용, 황영일, 임기채, 김춘권,
정홍식, 김환기
- 4) 진행위원장 / 이인상 장로
- 5) 회 계 / 김환기 장로
- 6) 서 기 / 이형수 집사(교육연구소 서기)
- 7) 기획담당 / 서동석, 김단용 장로
- 8) 홍 보 / 손경수 장로
- 9) 워북 및 발간 / 김규석 집사 (교육연구소 실행위원)
- 10) 촬영 및 영상 기록 / 허 오 집사 (교육연구소 실행위원)
- 11) 분임토의 기록 및 정리 / 교과과정 분과 : 이부성 집사, 김정순 집사
교사분과 : 김영숙 집사
교재분과 : 김정희 집사, 정연희 집사
조직분과 : 김규석 집사, 박성명 집사
재정분과 : 허 오 집사
행사분과 : 전은배 집사, 안석현 집사
- 12) 행정실무 / 이순주 선생

11. 예 산

- 1) 준비기도회비 / 500,000원
- 2) 자료수집비 / 200,000원 × 6 = 1,200,000원
- 3) 식 대 / 2,000원 × 1000명 × 2일 = 4,000,000원
- 4) 인쇄, 발간비 / 1,500원 × 1500부 = 2,250,000원
- 5) 행정비(워북, 촬영, 녹음 등) 1,000,000원
- 6) 평가회의비 / 5,000원 × 20명 = 100,000원
- 7) 예비비 / 450,000원
계 / 9,500,000원

◆ 분임토의 대표 토론자 명단 ◆

분과별	장로	교역자	남부감	여부감	교사		학생
교과과정 (김동석)	최무길(중 2)	한영준(영)	이신희(초)	원길자(청 1)	이명규(영)	이수경(청 1)	김민(대)
	엄필성(장 3)	전형준(청 2)	원응철(중 1)	윤수원(청 2)	이석목(소)	최대환(청 2)	송은석(청 1)
	김정철(탁)	이승학(청 1)	최윤덕(새)	박명엽(새)	강남석(중 2)	이성남(혼)	최윤석(청 2)
		정해성(새)	이부성(E)	김정순(E)	현준봉(중 3)	이명희(아)	
교사 (김단용)	황영일(영)	송원석(초)	이인광(소)	장영저(아)	김시주(장 1)	김석영(E)	박혜원(대)
	강은원(랑)	김동하(대)	임창식(중 2)	최규(대)	허만선(초)	정창일(장 3)	김수진(청 1)
	김종구(아)	최자혜	신상수(예)	이순자(장 1)	장철환(청 2)	이영환(중 3)	김동석(청 2)
		조문찬(고)		김영숙(실)	이강근(예)	이병영(장 2)	
교재 (정갑신)	손동운(중 3)	정연희(치)	김영은(아)	오화자(치)	배춘식(혼)	정연희(실)	김지윤(대)
	손경수(청 2)	김영기(유)	권명옥(대)	조혜순(고)	함철주(초)	조명호(랑)	최형훈(청 1)
	김환기(혼)	박인기(예)	황의만(장 3)	박영엽(장 2)	이정협(E)	안준모(예)	이정생(청 2)
		김병수(E)	이만기(망)		류동호(중 3)	김재호(탁)	
조직 (권상현)	이종섭(치)	정현민(장 3)	강철형(유)	안금자(유)	김상철(아)	김규석(실)	조영우(대)
	강모용(장 2)	오인숙(탁)	박덕양(혼)	이수자(중 30)	오해섭(유)	이명희(장 2)	윤석현(청 1)
	김천재(E)		이형수(청 1)	명정옥(장 3)	박용기(중 1)	지규성(장 3)	김영묵(청 2)
				최정옥(탁)	김동욱(고)	김윤식(망)	
제정 (윤성철)	임기재(유)	이종대(망)	최정남(영)	백영기(초)	장금줄(치)	이학봉(청 2)	전성진(대)
	김춘권(청 1)		김광호(고)	이애나(중 2)	오순도(유)	김을필(영)	이길찬(청 1)
	정홍식(대)		이동명(장 1)	반정현(망)	신종기(소)	추병창(망)	권정옥(청 2)
			최차용(장 2)	강석란(예)	이상해(중 2)	김수연(랑)	
행사 (서동석)	임무천(고)	김정자(아)	김구형(치)	서명숙(영)	박명란(치)	한홍연(청 2)	박지현(대)
	이병옥(장 1)	조철수(혼)	장충균(중 3)	백영희(혼)	전종일(소)	이장하(망)	강은선(청 1)
	진홍용(예)		박철구(청 2)	조옥환(중 1)	김태홍(중 1)	홍영표(예)	최은희(청 2)
					정원근(중 2)	전은배(실)	
					정구도(대)	김준호(E)	
					하종진(청 1)	안석현(실)	
					전승훈	송혜경(영)	
					김영옥(아)		

◆ 주제강의 · 1 ◆

성경에 나타난 신앙교육과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우리나라의 신앙교육

박 형 용 목사

충현교회 협동목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1. 성경에 나타난 신앙교육

교육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변화되며 또 발전한다. 교육학자들은 인생의 처음 5년동안 배운 것이 다른 어느 시기의 5년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말한다.¹⁾ 그리고 교육은 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든지, 삶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든지, 또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든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에 관심이 있다. 공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은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건전해야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이 훌륭해야 한다. 좋은 내용이라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 고상한 목적도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게 된다.²⁾

신앙교육도 같은 접근이 가능하다. 신앙교육도 목적, 내용, 그리고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1) 신앙교육의 목적

기독교 신앙교육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신앙교육의 성격상 분명한 목적은 성경의 교훈을 근거로 설정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개 교회의 신앙교육의 노력은 교인 숫자 증가에만 급급한 나머지 단편적이고 단순한 교육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신도 일깨우기나 제자훈련이나 전도폭발이나 새벽기도운동 등 이와 같은 모든 운동이 교인 숫자 증가에만 목적을 설정한다면 건전한 신앙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충현교회는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몇 교회 중의 한 교회로 신앙교육을 위해서 광범위하고 명백한 신학적 근거를 가진 교육목적을 설정해야

1) C. B. Eavey,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Chicago: Moody Press, 1964), p. 8: "it is safe to say that a human being learns more during the first five years of life than during any other five-year period."

2) *Ibid.*, p. 9.

한다.

게베라인(Gaebelein)은 이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성경은 교회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벤전 2:9)에게 찬양을 돌리기 위해 헌신된 예배의 공동체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하며,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을 복종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³⁾ 게베라인의 구분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복음의 전세계적 전파, 그리고 성도들의 삶과 봉사”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함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요 4:23-24; 엡 1:6, 12, 14; 3:21; 5:19-20). 교회의 신앙교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신앙교육은 성도들이 복음전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무장시켜야 한다(마 28:18-20; 행 1:8).

그리고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삶이 있고 성장이 있고 그리고 봉사가 있다. 신약성경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롬 12:5-6; 고전 12:7; 엡 4:7; 벤전 4:10). 교회의 신앙교육은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들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여 교회를 세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도와야 한다.

2) 신앙교육의 내용

신앙교육의 내용은 성경 자체이다. 바울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16-17)라고 쓴다.

여기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잠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본문(딤후 3:16~17)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성경(γραφή)은 어떤 책을 가리키는가? 본문의 “성경”은 일차적으로 구약을 가리킴에 틀림없다. 그라페(γραφή)라는 용어는 구약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전문적인 의미로 신약에서 사용된다(마 21:42; 22:29; 눅 4:21; 24:27, 32, 45; 요 2:22; 10:35 등). 그런데 바울은 본 구절에서 그라페를 관사 없이 사용한다. 그라페가 바울 서신에서 관사 없이 사용된 예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⁴⁾ 바울 서신에서 그라페가 정관사 없이 사용된 로마서 1:2; 16:26; 디모데후서 3:16 중 로마서 1:2과 16:26은 정관사는 없지만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그라페가 구약을 한정적으로 가리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16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요, 이 구절이 성경 영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울이 본 구절에서 정관사 없이 그라페를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라페가 관사 없이 사용되면 그라페에 질(質)적인 의미가 부여된다.⁵⁾ 즉 그라페의 질을 소유한 모든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지시한다. 그라페의 특성을 소유한 모든 기록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이

3) Frank E. Gaebelein, *A Varied Harvest*(Grand Rapids: Eerdmans, 1967), p.160.

4) Smith가 편집한 *Greek-English Concordance*는 γραφή가 신약 전체에 51회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한다. 그 중에 막 15:28에 1회 사용된 것도 포함되었는데 막 15:28은 헬라어 및 한글 개역과 다른 번역판에 삽입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막 15:28이 후대의 사본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f. J. B. Smith, *Greek-English Concordance*(Scottsdale, PA: Herald Press, 1947), p. 74.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γραφή가 14회 나타나는데 모두 정관사와 함께 나타나고 롬 1:2; 16:26; 딤후 3:16에만 정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구절에 나타난 표현의 전문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See. W.F. Arndt and F.W. Gingrich,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p. 164. (γραμμα, 2c 부분 참조)

5)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5), p. 57. (sect. 176, 177)참조. Zerwick은 딤후 3:16의 경우에 대해 “Hence in *πασα γραφή γραφή θεόπνευστος* 2 Tim 3, 16 it is correct to insist on the absence of the article as showing that inspiration belongs to Scripture as such(⟨all Scripture...⟩), whereas with the article(⟨all the scripture...⟩) it would simply register the fact that the existing Scripture was inspired, without establishing a formal

의미는 일차적으로 구약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미 기록된 신약이나, 기록의 과정에 있는 문서들도 “그라페”에 속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모든 성경”의 “모든”(παντα)은 무슨 뜻인가? 파사(πασα)를 집합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전체(all)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해석과 개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전체(every)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해석이 있다. 집합적인 개념의 전체나 개별적인 개념의 전체가 결과적으로 같은 전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⁶⁾ 그러나 어떤 이들이 “모든”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여 성경의 어느 부분은 영감되고, 또 어느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는 사상을 이끌어 내기 때문에⁷⁾ 본문의 경우 “모든”을 집합적인 개념의 전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성경의 어떤 저자도 성경으로 분류된 어떤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⁸⁾ 본문은 성경의 모든 부분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기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셋째, 본문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θεόπνευστος)이란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먼저 데오프뉴스토스가 문장 구성상 서술적 위치에 있는지 혹은 한정적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서술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⁹⁾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을 한정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때,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으로 번역해야 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한정적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성경을 직접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을 한정적으로보다는 서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 이유는 ① 데오프뉴스토스(θεόπνευστος)와 오펜리모스(ὀφειλμος)가 “그리고”(καί)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오프뉴스토스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오펜리모스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오펜리모스를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본문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② 데오프뉴스토스를 한정적으로 생각할 경우,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라고 번역하면 그 의미 속에 성경의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상을 함축하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경 66권 중 어느 부분만을 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 한정시키고 있는 부분만이 “모든 성경” 속에 포함되고 그 부분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상과 같이 문장 구조로 보나 그 의미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나 본문의 데오프뉴스토스는 서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θεόπνευστος)의 뜻은 무엇인가? 이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한번 등장하는 단어(hapax legomenon)이다. 그리고 이 용어는 동사적 형용사(verbal adjective)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데오프뉴스토스가 능동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사용되었느냐이다. 이 용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뿜고 계시는”(God-breathing)의 뜻으로 해석되며, 수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숨을 내뿜으신”(God-breathed)의 뜻으로 해석된다.¹⁰⁾ 이 용법을 성경의 영감과 연결시켜 보면, 능동적인 해석은 “성경이 영감시키고 있느냐”(Scripture is inspiring)가 되며, 수동적인 해석은 “성경이 영감되었느냐”(Scripture is God-breathed)로 된다. 즉, 능동적인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읽는 독자나 성경 말씀을 듣는 청자를 감동하는(inspiring) 측면을 강조하고, 수동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숨을 내뿜어 성경을 영감된 상태로(inspiredness) 만들었음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얼핏 보기에 큰 문제가 없는 듯싶다. 하지만 데오프뉴스토스를 능동적으로 취하느냐, 수동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성경 영감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데오프뉴스토스를 능동으로 취하면 성경은 단지 영감의 도구나 수단의 역할을 할 정도에 머물러

6) 워필드(B.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hiladelphia: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48. p.134)는 본문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취급한다. 그는 본문을 “Every Scripture, seeing that it is God-breathed, is as well profitable”로 번역하여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호흡의 산물임을 밝힌다.

7) 박형용, 『복음비평사』(서울:성광문화사, 1985), p.25 참조. L.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Grand Rapids: Eerdmans, 1973), pp.43-44.

8) I. Howard Marshall, *Biblical Inspiration*(Grand Rapids: Eerdmans, 1983), p.25.

9) “All Scripture is God-breathed”(N.I.V.). 혹은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N.A.S.B.)

10) All God-breathed Scripture. New International Version(1973)의 신약판에서 θεόπνευστος를 처음으로, God-breathed로 번역했다.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럴 경우 성경의 기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성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행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대로 데오프뉴스토스를 수동¹¹⁾으로 취하면 성경은 궁극적인 의의를 소유하게 되며, 성경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이 경우는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행위의 산물로서 성경의 본문을 생각하는 것이다. 데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의 내뿜는 호흡”과 “그라페”(γραφή)와의 본질적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¹²⁾ 이와 같은 신비로운 특성 때문에 성경은 다른 모든 기록과 구별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내뿜는 호흡에 의해 기록된 산물이다.¹³⁾ 하나님의 이런 행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문서가 된다. 모든 성경의 기원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내뿜는 호흡,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성경은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본문의 저자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며 그 내용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고,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여기서 “성경공부”라는 명칭하에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는지 몇 가지 경험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1) 경험 하나

대집회의 스케줄에 ‘성경공부’라는 제목이 붙은 시간이 있었다. 대집회 기간 중에 개인전도, 세계선교, 헌신 등에 대한 호소를 많이 들었다. 이제는 이런 호소의 음성을 벗어나서 굶주린 영혼을 살찌게 할 성경공부 시간이 돌아왔다고 생각하여 큰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접할 생각에 마음이 동요되고 있었다. 인도자가 성경을 펴고 읽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인도자는 또 하나의 설교를 하고 말았다. 그 설교는 적절한 설교였을 뿐 아니라 훌륭한 설교였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공부는 아니었다. 독수리처럼 본문 위를 이리저리 날아 움직였지만 본문 위에 앉지 않았다. 나의 기대는 산산히 깨어졌고 내 영혼은 참석하기 전과 다를 바 없이 굶주린 상태로 그 장소를 떠나면서 인도자가 아마 설교와 성경공부를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설교하는 것은 성경공부와 다르다.

(2) 경험 둘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신 후 교인들에게 자신은 성경공부를 시키는 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들이 모두 진지한 약 45분 간의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그런데 본문을 읽은 후 목사님은 다섯 가지의 권고를 하셨다. 물론 우리들은 다섯 가지 이상의 권고를 들어 마땅하지만 성경공부와 권고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비록 나는 교회당을 나오면서 권고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었지만 본문에 대한 통찰력은 전혀 얻지 못했다. 본문을 근거로 몇 개의 훌륭한 권고를 하는 것이 성경공부라고는 할 수 없다.

(3) 경험 셋

나는 의자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였다. 성경공부라는 미명하에 진행될 한 시간의 설교 또는 권고를 잘 참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설교자가 하는 첫마디의 말에 나는 정신이 바짝 들었다. 설교자는 “오늘 저녁 나는 성실하고 진지한 성경공부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성경을 펴 다음 본문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마디가 지난 후 나는 역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사님은, 본문에 나타난 소유격은 주격적 소유격이며 동사는 단순과거(aorist)이며 하는 등 평신도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곤 했다. 시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아 조는 사람이 속출했고 설

11) 일반적으로 동사적 형용사의 어미가 -τος로 끝나면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ἀγαπητός의 경우도 “사랑받는 (beloved)”의 뜻으로 사용된다(마 3:17). 워필드(Warfield)는 -τος와 θεός의 합성어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로 산출된 결과를 나타내며 수동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예로 θεόγραπτος, θεόδοτος, θεοδίδακτος, θεομακάριστος 등 많은 유사한 단어를 제시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합성어인 86개 중 75개가 하나님에 의해 산출된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75개의 예를 제시한다. cf. B.B. Warfield, op.cit., pp.281~282.

12) G.C. Berkouwer, *Holy Scripture*(Grand Rapids:Eerdmans, 1975), p.140.

13) 영어의 Inspiration은 라틴 Vulgate:Omnis scriptura divinitus inspirata의 inspirata에서 왔다. 그런데 이 용어는 “숨을 뽑어 들인다”는 개념을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헬라어의 본 뜻은 “숨을 뽑어 밖으로 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한글 개역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란 표현은 이런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영어의 경우 N.I.V.의 신약판이 1973년에 나오기까지는 θεοπνευστος를 God-breathed로 번역하지 않고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A.V.)나 “is inspired by God”(N.A.S.B.) 등으로 번역했다.

교자는 설교자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학문적 주석이 성경공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4) 경험 넷

나는 대학생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했다. 밖에서는 햇볕을 쬐고 강단 안에서는 서늘한 공기의 감촉을 느끼며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다. 나는 이런 대학생들이야말로 훌륭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모셨을 것으로 생각했다. 강사의 명성이 너무나 뛰어나 '나는 이번이야말로 진지한 성경공부를 하게되었구나' 하고 즐거워했다. 그 유명한 강사는 강단 위로 의기양양하게 걸어나와 성경을 강대상 위에 놓고 청중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마치 피아노의 건반 위를 움직이는 손가락처럼 그의 손가락은 이곳저곳을 뒤흔들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열거했다. 나는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의 견해 발표장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성경에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한 시간이 지난 후 성경의 진리를 접하게 되었다는 생각 대신 세뇌를 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견해를 선전하는 것이 성경공부는 아니다.

(5) 경험 다섯

나는 어떤 목사님이 성경공부 시간에 성경의 한 구절을 읽은 다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전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고 권고를 할 필요도 없이 조용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의 본문을 가르칠 때 그의 가르침이 마치 한 눈이 애꾸가 된 닭이 옥수수 알을 쪼는 것과 같았다. 쪼을 때마다 옥수수를 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을 쪼곤 했다. 계속해서 쪼지만 결국 성공은 하지 못했다. 이 경건한 목사님도 본문을 계속 가르치지만 본문의 본 뜻을 찾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면서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러 가지 서로 관련 없는 경건한 관찰을 본문에서 찾아낸 다음 한 시간을 마쳤다. 물론 그 경건한 관찰마다 귀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본문은 열려지지 않고 닫혀진 채 남아 있었다. 우리는 본문 주위를 배회하면서도 본문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 셈이었다. 경건한 관찰을 본문에서 찾는 것이 성경공부는 아니다.

(6) 그러면 진정한 성경공부는 어떤 것인가?

① 성경공부는 평이한 언어로 해야 한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는 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연구의 냄새가 성경공부할 때 자주 나타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경도 평이한 언어로 기록되었다.

② 성경공부의 실제적 목표는 정해져 있는 본문의 뜻을 청중에게 전하는 것이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한 시간에 취급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을 성경에서 정하여 그 내용을 찾아야 한다. 지도자는 반드시 그 본문의 기본적인 뜻을 밝혀 주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공부이다. 성경주석은 성경 원저자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며 성경공부는 똑같은 일이지만 약간 덜 기술적이고 덜 학문적이라 할 수 있다. 성경공부는 보다 대중적이고 경건한 면이 있다. 성경공부의 중심은 본문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다.

훌륭한 성경공부 지도자는 단어나 구절에 대한 감각(sensitivity)을 개발시켜야 한다. 마치 훌륭한 의사가 손가락에 뛰어나 감각을 가진 것처럼 훌륭한 성경공부 지도자도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

③ 성경공부는 항상 청중들의 시대와 생활에 적절하게 성경본문을 적용해야 한다.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것이다. 먹일 때 청중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어야 한다. 아이에게는 우유를, 어른에게는 음식을 주어야 한다. 성경 진리를 찾아 성도들의 구체적인 형편에 적용해야 한다. 교리적인 적용이나 영적 생활을 말씀에 통해 교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성경교사는 성경에서 위로, 격려, 칭찬의 말을 신자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좋은 성경공부 지도자는 본문에서 경건한 점을 찾아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등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 생애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좋은 성경공부를 했다고 느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본문을 접하여 그 본문의 뜻을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성경공부 도중 주로 본문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데 시간을 보냈고 성경공부하는 중 본문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교훈을 얻었다고 느껴지면 좋은 성경공부를 했다고 생각된다.

3) 신앙교육의 방법론

신앙교육의 방법론은 예수님의 교훈방법을 본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교훈방법은 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그때 그때 생생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다.¹⁴⁾ 예수님의 교훈은 추상적이지 아니요 예시적이며 구체적이다.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 구체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신다.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는 자연의 발전 과정과 구속의 과정을 유추적으로 연관시킨다(눅 21:19-31). 예수님의 비유 사용은 구속역사를 가르치시는 신앙교육의 본이 된다. 예수님의 비유 사용원리를 몇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비유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로운 점이 있다. 비유는 특별한 진리를 설명하고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수님은 왕국에 관한 특별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시곤 했다.¹⁵⁾ 비유는 진리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며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그 이유는 비유를 듣는 자들의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험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유를 사용하므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 추상적인 표현은 적대심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그러나 비유는 추상적인 표현보다 적대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실제적인 교훈을 전달할 수 있다.¹⁶⁾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경우나(삼하 12:1-6), 선한 사마리아 사람(눅 10:30-37)의 경우가 이런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예수님은 진리를 감추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은 진리의 교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시므로 진리를 감추셨다(막 4:11; 눅 8:10; 마 13:13-16). “하나님은 그가 뜻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주권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가 뜻하는 자로부터 그 비밀들을 주권적으로 감추신다.”¹⁷⁾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고 완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사용하시므로 진리를 감추셨다.

네째, 비유는 단순히 설교적 및 교훈적인 측면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유는 실제적이고 수사학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요 더 심오한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태초부터 창조속에 감추어진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¹⁸⁾

마태복음 13:35에서 시편 78:2을 인용한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마 13:35)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매일 생활의 자연적인 과정이 구속적 사건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 사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구속의 개념이 창조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⁹⁾ 창조에 관한 바른 견해를 갖지 않으면 구속의 개념도 바로 가질 수 없다. 대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창조의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것이다(골 1:15-17).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을 중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도 중재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창조의 사건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구속의 중재자로서 예수님은 비유를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사실은 예수님이 태초 창조시에도 중재자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의 해석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다. 창조의 질서 속에 감추인 것을 비유로 설명하므로 하나님의 궁극적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사실은 태초부터 창조의 사건에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창조의 종말론적인 성격은 구속의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문화와 시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잡초와 알곡을 계속해서 분리시킨다. 이 행위는 우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마지막 날의 종말론적 추수를 가리키고 있다.²¹⁾

14) Bill Austin, *Austin's Topical History of Christianity*(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s, 1983), p.34.

15) Herman C. Hanko, *The Mysteries of the Kingdom*(Grand Rapids: Reformed Free Publishing Association, 1975), pp.3, 4.

16) G. Vos, *Biblical Theology*(Grand Rapids: Eerdmans, 1968), p.379.

17) Hanko, op. cit., p.7.

18) Vos, *Biblical Theology*, p.380; Bob Smith, *Basics of Bible Interpretation*(Waco: Word Books, 1978), p.131: “Parables employ a visible world to lead us to understand the invisible things of God.”

19) Hanko, op. cit., p.4: “And if the earthly world was created by this Word of God, it stands to reason that this pattern of the heavenly in the earthly creation was easily discernible to the Lord. Walking through the midst of His own world, He could see parables on every hand.”

20)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들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현저하다. see, I.H. Marshall, *Eschatology and the Parables*(London: Theological Students' Fellowship, 1973), pp.24-45.

21) 롬 8:22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의 말씀도 구속과 창조의 종말론적 완성을 연관시키고 있다.

2.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초대교회의 신앙교육은 일반적으로 문답식으로 이루어졌다. 문답식 교수법 혹은 요리문답(catechism)이라는 용어는 헬라어의 “가르친다”(katecheo, κατηχεῖω)에서 왔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구도자를 가리켜 카테쿰멘(catechumen)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신약에서 8회 사용되었는데 누가와 바울만 사용했다. 누가는 누가복음 1:4; 사도행전 18:25; 21:21, 24에서 4회 사용했고 바울은 로마서 2:18; 고린도전서 14:19; 갈라디아서 6:6(2회)에서 4회 사용했다. 스미스(J.B. Smith)는 이 용어가 8회의 용도 가운데 “지시한다”(instruct)로 누가복음 1:4; 사도행전 18:25; 로마서 2:18에서 사용되었고, “가르친다”(teach)로 고린도전서 14:19; 갈라디아서 6:6(2회)에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알린다”(inform)로 사도행전 21:21; 21:24에서 사용된 것으로 구분한다.²²⁾ 그러나 한글개역성경은 “가르치다”와 “배우다”의 뜻으로 누가복음 1:4(배운 바), 사도행전 18:25(배워), 사도행전 21:21(가르치되), 고린도전서 14:19(가르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6:6(가르침을 받는 자), 갈라디아서 6:6(가르치는 자)을 번역했고 “알린다”의 뜻으로 사도행전 21:24(들은 것), 로마서 2:18(받아)을 번역했다. 성경본문은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이 신앙에 관한 것임을 명백히 한다.

특히 바울은 “카테게오”를 신앙의 내용을 어떤 사람에게 가르칠 때 사용했다.²³⁾

초대교회의 신앙교육은 기독교인들의 공적인 모임과 기독교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1) 기독교인들의 공적인 모임

기독교인들의 공적인 모임은 세가지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성경교육을 위한 공적인 모임

성경교육은 교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교화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교육, 그리고 성도 상호간의 교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도들이 회집하면 기도, 찬양, 교육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을 읽는 것 등이 실현되었다(행 2:42-47).

사도행전 2장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라고 기술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시며 그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요지이며 또한 바울의 설교의 중심 요지이다(행 2:22-36; 3:12-26; 5:29-32; 13:26-41; 17:2-3; 28:30-31).

둘째, 애찬을 위한 공적인 모임

공동의 식사인 애찬을 나눈 다음 일반적으로 성만찬을 거행했다. 애찬은 성도 상호간의 교제와 관심의 표현이었다. 성도들이 회집하면 함께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절정으로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다.

성만찬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성만찬이 경건하게 실행되긴 했지만 구속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의식이었다(고전 10:14-22; 11:21-47).

셋째,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적인 모임

기독교 공동체는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공적인 모임을 가졌다. 교회 공동체의 힘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한 교회의 권징도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적인 모임 때에 의논되었다(행 1:20-26, 마디아 선택; 행 5:1-11,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행 6:1-6, 일곱 집사 선택 등).

2) 기독교 가정에서의 교육

기독교 가정은 기독교 공적인 모임과 함께 신앙교육의 두 축을 이루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이시도르 엡스타인

22) J. B. Smith, *Greek-English Concordance to the New Testament*, p. 200(section 2727).

23) K. Wegenast, “κατηχεῖω”,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3(Grand Rapids: Zondervan, 1979), p. 771.

(Isidore Epstein)은 “어떤 종교도 유대주의만큼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더 강조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교육은 “가정교육의 보조에 지나지 않는다”²⁴⁾라고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학교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학교가 시작된 이후나 할 것없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책임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신 4:9; 6:7, 20-25; 11:19; 잠 1:8; 6:20; 13:24; 22:15; 엡 6:4).

여기서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첫째, 부모들의 양육(엡 6:4)

에베소서 6:4은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한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함께 한다. 소극적인 권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하지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골 3:21; 참조, 롬 10:19).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은 일관성이 없는 것, 임의적인 것, 어리석은 것, 잔혹한 것, 부모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헨드릭센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과잉 보호, 편애, 실망시키는 것, 자녀의 성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 무시하는 것, 그리고 혹독한 말이나 육체적 학대를 통해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²⁵⁾ 본문에 나타난 사상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의 생명의 귀중성을 인식하고 자녀를 어떤 기계나 동물처럼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녀들은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격체이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오락이나 취미를 살리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관심을 제공하지 못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해, 피아노 쳐, 숙제 해” 등의 강한 요구는 쉽게 하지만 진정으로 인격적인 관계의 대화는 전혀 하지 못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긴장감,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고심, 성장하는 과정 중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부모와 함께 부담없이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은 사회의 경쟁심에 휘말려 자녀들에게 과잉 요구를 하거나 비인격적인 요구를 할 때가 많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 노엽게 하지 않으므로 인격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소극적인 권면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권면을 한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παιδεία)은 자녀에게 본을 보여 자녀를 인도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본문의 교양은 행동(act)으로 자녀를 훈련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가정의 법과 계율에 따라 행동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훈계(νουθεσία)는 말로써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을 뜻한다. 훈련은 권면, 경고, 교훈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²⁶⁾

둘째, 주 안에서 훈계(엡 6:4)

그러면 주 안에서 하는 훈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부모는 자신을 제어하면서 안정된 자세로 자녀에게 훈계해야 한다. 자녀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감정을 폭발시켜서는 안된다. 부모들은 경우가 어느 경우이건 자신을 제어하고 마음에 평정을 가진 후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도 자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인격체를 훈계할 수 있겠는가.

둘째, 부모의 훈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모들의 태도가 우유부단해서 어떤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다른 때는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식의 훈계는 어린이에게 불안을 조성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부모들이 사건의 내용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기분에만 맞추어 훈계를 하면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서 그 가치 기준을 잃고 마는 것이다.

셋째, 부모들은 항상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들의 형편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한다.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이유를 들어본 후 적당한 훈계를 하여야 한다. 어른들이 잘못했을 때 국가가 그 이유도 묻지 않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두어버린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는가?²⁷⁾ 마찬가지로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들을 수 있는 여유와 배려가 부모

24) Isidore Epstein, *The Jewish Way of Life*(London: n.p., 1946), cited in William Barclay, *Education Ideals in the Ancient World*(Grand Rapids: Baker, 1974), p.15.

25) W. Hendriksen, *Exposition of Ephesians*(Grand Rapids: Baker, 1972), p.261-262.

26) M.R.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III(Grand Rapids: Eerdmans, 1975), p.404.

27) Habeas Corpus, Act를 참조하라. Habeas Corpus는 “당신은 몸을 가졌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불법으로 감금된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 법은 지금도 임의적으로 감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에게 있어야 한다.

넷째, 훈계는 알맞게 해야 한다. 자녀가 작은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자신의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혹독한 훈계를 하고 자녀가 큰 잘못을 범했는데도 부모가 기분이 좋다고 그저 넘겨버리는 경우는 자녀들에게 어느 것이 더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훈계를 할 때 자녀가 치욕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훈계해야 한다. 훈계가 책벌로 끝나버리면 결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훈계는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부정적으로 “그건 해서는 안돼”하고 끝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하고 방향 제시를 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자녀들로 주님을 알게 하는 것은 기계적인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자녀에게 기독교가 비참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나는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비참한 모습과 태도만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들은 부모들을 보고 기독교가 비참한 것으로 알게 된다. 다른 하나는 부모가 항상 “하지 말라”(do not), “해서는 안된다”(must not) 등으로 자녀를 억압하면 그 자녀는 기독교를 비참한 종교로 인상을 갖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님을 고백하도록 강제해서는 안된다.

사실상 부모는 원하지만 하면 자녀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부모의 강제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녀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머리요 주인인 것을 모든 면에서 보여줄 때 자녀는 때가 되면 성령의 인도로 스스로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것은 기독교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 전체가 정말 매력적인 것으로 부모들의 생활과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자녀들은 기독교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독교가 매력적이지요, 멋진 종교요,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주제강의 · 2 ◆

충현교회 신앙교육의 어제와 오늘

이 승 수 목사

〈선교위원회 지도〉

1. 충현교회 신앙교육에 관한 약사

1953년 9월 6일 / 첫 예배, 설립예배시 18명 중 10명이 학생

1953년 11월 1일 / 유년(6명으로 시작), 장년주일학교 개교

1955년 / 교회 주일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유년부 부흥회 실시

한국통일공과를 교재로 사용

1958년 / 전국 어린이 성경 동화 대회를 실시

(경기노회, 기독교방송국, 기독교보사 후원)

1959년 / 전담 지도자를 세워 운영, 교사강습회 실시, 어린이회 조직, 어린이신문발간

1961년 / 교육위원회 설치(초대 위원장/조천일 목사)

1962년 / 교사 부족으로 인한 분반공부 폐지하고 예배에 치중

1963년 /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으며 ‘천국일꾼 키우자’, 주일학교 성장 시작

-면려회 중심으로 활동하던 청년회, 중·고등학생회를 주일학교 체제로 바꾸고 중·고등
부 분리, 처음으로 중·고등부 교사 임명

-기독교장년면려회(CE)에 가입, 교회연합 활동 시작

-하기수양회 실시

1964년 1월 13일~17일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 개최

1965년 / 교육위원회 폐지

-70인전도대 조직

1966년 / 교육위원회 부활(한제호목사가 교육위원장에 위임)

-인사권(각부의 부감 및 교사를 임명, 청원)을 갖게 됨

-주일학교 교칙 및 각부 부칙 승인건을 당회에 제출, 가결됨 (주일학교 행정의 체계를 확

고하게 세워가는 기틀을 마련)

-각 학교의 전도대라고 할 수 있는 ‘목요회’ 조직

1967년 / 6부(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각자 발행하던 월보를 통합 발행

유년부 제1권, 초등부 제1권의 계단공과 편집 후 총회에 헌납, 타교회에서도 사용, 한국교회사에 기념비적인 일을 수행

1968년 / 교사, 학생, 부모를 연결하는 교육 실시, ‘부모님 강좌’ 실시

1969년 / 제1회 교사학교 개교, 교사자격증 수여(타교회까지 동참 소동)

1970년 / 교육위원회 행정부가 주일학교 전반에 걸친 사무행정 검열 실시(주일학교행정을 확인, 지도)

1971년 / ‘장학위원회’ 구성(부교역자 중 신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게 학비 지원)

1972년 /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부흥회 개최

1972년 / 상설 지도자 양성부 신설

1973년 / 충현 성경학원 개설

1976년 / 해외이주자 교육

1977년 / 신혼부부 교육 실시

1983년 /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일원화

(예산, 행사, 인사 등의 문제를 원칙을 정해 실시)

1985년 / 정기담회에서 중, 고등, 대학, 청년부 집회를 별도로 갖지 않고 주일 낮예배로 통합하는 일련의 대개혁을 단행, 주일 5부제로 확대되고 그 중 2부 예배는 중등부, 고등부가 참석하고 5부 예배(오후3시)에는 대학부, 청년부가 참석, 주일 당회장 목사의 설교를 교재로 만들어 사용, 새신자환영, 찬양대 활동 등도 대예배로 포함하여 실시

1988년 / 영어예배 신설, 각 부서는 원래의 방법으로 돌아 감

1995년 / 제1, 2교육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통합

1997년 / 젊은이를 위한 5부 예배 신설

2. 약사에 나타난 특징

1) 초기부터 신앙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관심과 열정을 가진 교회

- 교회 설립 당시 18명 중 10명이 학생이었다.
- 최초로 유년부 부흥회를 실시
- 개척하면서 유년주일학교, 장년주일학교 개교
- 설립 10주년에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교회 목표 제시
- 김창인 원로목사는 교육적 은사가 풍부한 분이다.

- 초창기부터 교육행정의 체계를 잡아감으로 부흥발전에 큰 역할을 함.

2) 한국 교회의 신앙교육 부문에 많은 기여를 한 교회

- 전국 어린이 동화대회 개최
- 교사 세미나, 합동 교사 수련회 개최
- 유초등부 계단공과 편찬하여 총회에 헌납

3)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가진 교회

- 창의적인 발상을 교육에 많이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유년부 부흥회, 교사양성부,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 신혼부부교육, 해외 이주자 교육, 소망부 등

4) 교회학교 교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한 교회

- 교사양성부 신설, 교사자격증 수여

3. 신앙교육에 대한 점검

1) 신앙교육의 목적

- 목적 및 목표 → 정책 → 비전
- 충현교육의 교육에 대한 목표는 '천국일꾼 양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일꾼에 대한 정의가 진술로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강조점이 이동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각 부서에 지도 교역자가 바뀔 때마다 부서 목표가 바뀌는 일이 있어 왔다.
- 교육 결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에 관한 유효한 수단을 많이 개발하지 못했다.
- 적절한 교재 개발이 되지 않았다.

2) 신앙교육을 위한 조직

- 효율적인 조직과 조직을 구성하는 적절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 조직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부서장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
- 조직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 현재 우리 조직은 신앙교육에 있어서 비전과 목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가?

3)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 창조적 역동성이 나올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직이 운

영되어야 한다.

- 영적인 공동체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분임토의 내용 정리 (분과별)

교과과정 분과

1. 분임토의 주제 : 충현교회 교회학교의 각 과정별 교육목표 및 이에 따른 교과과정에 대한 제반사항
2. 주제 설정의 배경 : 우리 교회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23개 교회학교의 각 과정별 교육목표 및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검토하고 여기에 나타난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함으로써 충현교회 교회학교의 보다 효율적인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확립을 준비해 보고자 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1. 교육목표—일반적 측면	1.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1.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만 보다 명확한 개념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성경에 근거한 세부적인 교육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전 교회적인 교육 목표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2. 장기적인 교육목표의 명확한 정의가 설정되어야 한다. 3. 제시된 교육 목표에 준하여 각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실행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4. 단기적으로는 매년 각 단위별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전체적인 연간 교육 목표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제안 1에 반영
	2. 현재와 미래의 학생 성장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되었는가?	1. 비교적 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각 성장단계별 기준이 막연하고 광범위하다. 2. 구체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	
	3. 각 단계별 학생의 성장 수준에 적합한 교육목표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1. 학년별 성장과정을 고려한 연계성이 약하여 지나친 반복이나, 혹은 단절된 교육이 많다.	
	4. 각 단계별 성장과정을 고려한 교육목표가 세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1. 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교육부서의 계획이 세부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다. 특별히 지도 교역자의 잦은 교체와 비 전문성으로 인하여 확실한 성과가 잘 나타나지 못하는 형편이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2. 교육목표-세부적	1. 최근 10여년 간의 교육 목표가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1. 최근 10여년 간의 교육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교사가 없고 참고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각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의 취합과 각 부서의 교육활동을 지속할 전문교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2.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지도교역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 방침이 바뀌기에-교육목표가 바뀌는가? 교육방법이 바뀌는가? (대부분의 교사는 이 부분을 혼동하고 있어서 교육 시행 방법에 대한 빈번한 혼란이 근본적인 교육목표의 부재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3. 우리 교회의 5대 목표가 각 부서에서 실제적인 교육 목표로, 그리고 교육과정에게까지 실제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교육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현재 섬기고 있는 교육부서의 교육목표를 실제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사항을 검토하라.	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a.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는가? b. 개별적 성경교육이 이루어지는가? (읽기, 외우기, 전하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가르치기 등) c. 자발적 신앙생활을 가르치는가? (성경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봉사하기, 헌금하기, 예배드리지..) 1. 이러한 검토는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다. 대체로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반응. 일부의 교사들은 학생의 신앙 발달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너무 단조롭거나 단순하게 가르침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나. 교회적인 성장을 위해.. a. 공동체적 성장을 가르치는가? b. 성장과정별 교육을 지도하는가? c. 실제적 헌신의 자세를 배우는가? d. 성숙된 예배의 자세를 교육하는가? e.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가르치는가? 1. 실제적인 교육에서 있어서는 제시된 교육의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사의 자질과 헌신도, 그리고 교육환경에 따라 매우 심각한 영향력을 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2. 특별히 각 교육부서의 특성에 맞는 학습목표의 설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교과과정을 시행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3. 교과과정 - 일반적 측면	1. 교회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이 설정되었는가?	1.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 교육 목표가 분명치 않으므로 교과과정 또한 분명치 않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교회의 교육목표와 총회에서 제시되는(총회교재를 사용하는 경우) 교육목표가 달리 그레 따른 혼란도 무시할 수 없다. 2. 전문가가 부족하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각 교육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총회교회 교육목표에 상응한 교육부서 전체의 교과과정을 분명하게 세워 두어야 한다.	
	2.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단계별 성장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신앙 발달을 추구하는가?	1. 잘 안되고 있다. '균형 잡힌'이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지만, 우리교회의 교과과정은 대체로 기본적인 신앙지식은 명백히 강조하지만, 그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신앙인격의 성장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 2. 학생들의 균형잡힌 성장은 어느 한 부서의 특별한 뛰어남보다는 전체 교육부서의 총괄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 교회적인 조정과 아울러 세부적인 교육 지침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3. 근접한 상, 하위 교회학교의 교육과정과 실제적인 연계성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1.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같은 교재로 3년 이상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2.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회의 교육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도 교사와의 관계는 비교적 세울 수가 있으나, 학생들 상호간에 특히 선후배 간의 교류가 매우 미약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하급 학생이 신체적인 힘으로 상급학생을 억누르는 경우가 있었다. 비교적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장차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교과과정 - 세부적 측면	1. 각 학기별 교육과제에 따른 교과과정이 진행되는가?	1. 학년별 교과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학기별 교과과정은 말할 것도 없다. 한 예로 현재 중등1-3부는 같은 교과과정을 사용 중이다. 시급히 장단기적인 교육목표와 아울러 보다 세밀한 교과과정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학기 중 교역자가 바뀔 때 어려움이 야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도 교역자의 초빙과 각 부서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실제적인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교사의 양성, 특별히 각 성장 단계를 고려한 학습 과정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교육 연구소에 배치되거나 교회의 교육국에 상주하면서 전체적인 교회	제안 2 에 반영 (교육위원회가 그룹별로 구분된다면 훨씬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교육의 방향과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교육과정의 진행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지 아니한가?	1. 교과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별히 일부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를 들면, 사랑부 같은 경우는 반복학습을 위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 명확하나 교육목표의 설정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한 반복은 대대수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현저히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3. 교육과정의 진행이 지나치게 단절되어 있지 아니한가?	1. 단절되어 있다. 특별히 학생의 성장에 따른 상급 부서로의 이동이 교육과정에 배려되지 못하고 있다.	
	4. 교육과정의 진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각 단계별 성장에 맞춘 적절한 참여가 시도되고 있는가?	1. 적극적인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성장이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교육과정의 진행이 활력을 얻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아직도 많은 부서가 교사들의 일방적인 교육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2. 일부 성인 교육부서의 경우(장년부와 같은) 교사와 학생의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같은 시대 같은 신앙의 동반자로서의 학습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교역자의 성경 강해 시간에 이어서 교사들의 일상적인 출석 관리만이 시행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3. 특별히 절기에 따른 교육과정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총회의 교회력에 맞춘 교육과정이 전 교회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5. 각 교육과정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1. 매우 미흡한 형편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실제적인 적용과 성장도 등을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것 보다는 학습 성취도를 측정하고 실제적인 교육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5. 결 론		총현교회 교회학교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은 성경적인 바탕에 확립된 총현교회의 교육이념에 맞춘 것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목표는 각 교회학교의 교육성장 단계를 총괄할 수 있는 전체적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과과정은 각 교회학교의 교육과정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과 교회 교육이념에 따른 일관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각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단계마다 학생들의 성장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사항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각 단계별 성장을 고려한 교육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과내용과 그에 따른 실천적 교육방법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교육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 건의사항		1. 각 부서별로 교육 연구위원 2명씩 위촉 연구케 함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각 교육 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교육연구소나 교육 위원회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회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3. 교사들의 의견이 수시로 그리고 명확히 전달될 수 있는 상설 창구가 있었으면 한다.(교회 홈페이지 운영, 교육 상담 전화 가동, 교사 설문 시행 등) 4. 특별히 각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새가족들에 대한 교육 과정의 통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교회의 교육 이념과 학생의 성장도를 고려한 교육 과정이 시행되어야 교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다. 5. 교육연구소나 교육국에 상주 연구원을 배치하여 교육에 대한 제반 실무를 담당케 하고, 일반 교사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6. 장기적인 교육 목표의 정의에 대한 명백한 진술을 통하여 전 교회적인 교육 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각 학습 단계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 실행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교육과정의 통일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7.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교육회의의 자리에서 반드시 각 교육부서의 교육 활동상황을 재점검하고, 비교 조사하여 그에 따른 실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8. 이러한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을 보다 명백히 설정하고 우리 교회의 교육 이념을 보다 확고히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충현 교육 현장”의 제정 등과 같은 가시적이고도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9. 우리 교회의 상황이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시행중인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이 전국적인 교회들과의 실제적인 교류가 가능한지를 점검해 보고 이에 따른 미비점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 2 에 반영

조직 분과

1. 분임토의 주제 : 부서 및 특성에 따른 조직 및 편제

2. 주제 설정의 배경 : 우리교회 교회조직의 조직 및 편제는 과연 부서 특성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는 21세기를 맞아 전산 정보, 통신 기능이 이 시대에 발 맞추어 주님의 복음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지를 재 조명해보며 필요에 따라 구조 조정을 시행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1. 목표 지향의 조직 구성	1. 교회 목표가 예배, 교육, 선교, 전도, 이웃 사랑이다. 따라서 주일학교도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은가?	1. 교회의 각 조직에서 사용되는 명칭 중에는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명칭이 있다(각 부, 처, 과 등). 좀더 교회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2. 현 조직 체제 속에서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회 조직을 강화하자. 각 부의 과에 따른 전문교사 양성이 중요하다.(심방과, 전도과) 각과에 맞는 적임자를 발굴하여 교육하고 훈련해야 한다.	
2. 양육 중심인가? 사역 중심인가?	1. 제1교육위원회 (영아부 ~ 중등3부)는 양육중심이 필요하고 고등부부터는 사역중심이 좋을듯하다. 2. 부서별로 교육받는 자의 영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가족부는 양육중심으로 하되 처음 믿는 새신자와 학습교인, 세례교인의 구분이 필요하며 그 차이에 따라 교육받되, 양육과 사역이 결정되어야 한다.) 3. 제1, 2, 3교육위원회가 각 소속된 부서에서 정확한 목표와 중점사항을 두고 양육과 사역을 병행해야 한다. (소망부의 경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목표로 하고 개인의(성도) 믿음 상태에 따라 양육과 사역이 결정 혹은 병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양육과 사역의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나눌 수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부서별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부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현재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 어떤 부서가 교회 밖으로 사역을 나갈 때 교회의 허락문제, 부장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지를 교육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형평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융통성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3. 연령별 편제보다 성경공부 중심의 편제는?	1. 특히 장년부에서 창세기, 로마서반독 (연령별로 확립적으로 나누고 있는 장년부는 타부서에서 봉사하는 분이 많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년부의 경우에는 친교하려고 오는 경우보다 성경공부	1. 현재의 장년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전문성을 갖춘 성경공부 체제로 좀더 강화해야 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연령을 초월하여 성경공부 중심으로 반을 만들어야 한다.) 2. 장년부의 경우 연령별 편제나 성경공부 편제를 떠나 배우고 싶어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나누어야 한다. (신약반, 구약반, 성경연구반) 3. 연령별이 아닌 성경공부 중심의 편제는 교회 안에 주간성경 공부반이 있으며 매 학기 개설되고 있다. 장년부는 설교가 아닌 강의 형식을 띤 집회이다. 따라서 주일날 대 예배때 설교 말씀을 듣고 연령별로 모여 강의 듣는 이 체제가 좋은 것 같다.(소속감을 갖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된다)		
2. 교육위원회의 효율성 강화 1) 교육위원회 월례회원의 참석자 확대는?	1. 교역자, 부감의 참여(현재 각 부서장만 참석하고 있는데 매달 각 부의 총무처에서 교육위원회 월례회에 의안을 올린다. 그 회의에는 부장만 참석하므로 실무를 부감에게 위임한 부장은 부서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무자인 부감이나 교역자가 함께 참석해야 통과여의의 기관이 아닌 좀더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월례회가 진행될 것이다.	1. 교육위원회의 월례회를 위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의안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안 2에 반영
2) 제1교육위원회의 비효율성 세분화는?	1.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학년별로, 1학년 6학년을 세분화하면 어떤가?(각 학년마다 인원이 많으므로 세분화하면 더욱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현재 제1교육위원회가 비대하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로 세분하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세분하고 중등1,2,3부로 세분해야 한다.	1. 현재 실무진 (부장, 부감)을 소집하여 현재 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제안 2에 반영
3. 교사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	1. 전담교역자와 전임장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중등3부의 경우, 중등3부의 학생들이 겪는 심적발달이나 심리적인 문제들을 현재의 교사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1. 가능하면 주일학교 교역자는 교육을 전공한 전담교역자를 교회 형편에 맞게 확대해서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재 유년, 초등, 소년부는 교육 전도사들이 사역하고 계시다. 그러나 교육전도사 보다	제안 5에 반영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1) 교육부서, 전담 교역자, 전임장로제의 도입은?	경우가 많다. 신앙으로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전담교역자를 필요로 한다. 사랑부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다루는 특수전문 분야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는 교역자가 필요하다.) 2. 교회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각 부서의 교역자들을 지도하며 각 부서의 안을 조율할 수 있는 교육담당부서의 필요가 절실하다.	는 목사님들이나 유능한 역 전도사님이 사역하기를 바란다. (교사들의 영적 갈급함과 문제들을 그때 그때 상담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교사들의 영적인자질도 높아질 것이다.)	제안 5에 반영
2) 교사들의 임기제 도입은? Ex) 부장3년, 교사5년	1. 교사들의 임기제는 필요하다. (현재 교사들의 이동이 매우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하면 1년에 3번 내지 1번씩 바뀌는 경우까지 있다.)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3) 수평적 팀 구성은?	1. 우리교회의 조직은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평적 구조를 확대시켜 좀더 유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처,과에 책임자가 없을 때 그 일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Ex) 행사진행팀, 행정지원팀	1. 타부서와 비교하여 탁월한 능력자들을 다른 부서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별로 기획실을 두어 교회내의 부서간의 유대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아이디어 제 공 및 컨설팅 기능 포함)	제안 2에 반영
4. 기타	1. 우리 교회는 전산, 정보면이 약하다. 교회와 성도들간의 의사 교통 시스템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성도들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을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2. 교회학교에서 말씀교육과 함께 모든 부서에서 찬송을 가르쳐야 한다.(찬송은 2 ~ 3년만 배우면 잘 할 수 있다.)Ex) 새가족부의 경우 집회시작 하기 20분전부터 찬양담당교사가 찬송을 가르치며 부르고 있다. 3. 중·고등부 정도이면 영어 성경공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교회의 목표인 세계선교에 발 맞추어 영어성경을 소그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대시켜도 무방할 듯 하다. (영어예배부의 외국인들 강사로 도입)		

교재 분과

1. **분임토의 주제** : 충현교회에 적합한 복음적인 교재는 무엇인가? 교육기자재의 현대화(멀티미디어)와 그에대한 찬반론에 관하여

2. **주제 설정의 배경** : 1. 올해부터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전면 개정된 총회계단공과가 충현교회가 지향하는 성경본문중심의 교재, 기독교적 중심성을 갖는 교재의 요구사항에 얼마나 충족성을 갖느냐를 점검하기 위함. 2. 총회계단공과와는 별도로 충현교회에 맞는 교재개발이 과연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폭 넓은 여론은 수집하기 위함. 3.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는 교육기자재들과 최근 각 교회에서 경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멀티미디어 교육기자재의 사용 범위와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하여 토론을 벌임으로 '효과적인 교육기자재의 사용'을 위한 일정한 outline을 수립하기 위함.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언	비 고
1. 현행 공과 사용 실태 및 새 공과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비평(각 부서의 성경공과 공부 교재의 사용 실태 현황)	1. 각 부서별 공과사용에 통일성이 없다.	1. 영아부 기존출판사 교재(총회공과 없음) 2. 유아부, 유치부 총회공과 3. 유년부, 소년부 계단공과 4. 초등부 새공과 5. 중고등부 새공과 6. 대학부 청년1부 자체공과 7. 에바다부 및 사랑부, 영어에배부 등도 자체적으로 준비하여 교육 ※ 계다가 올해부터 총회에서 발간한 새공과도 아직 각 교육과정별 1년치분 밖에 출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과도적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 일단 기존의 계단공과가 주입식 교육을 위한 교사중심 주제별 교재라면 새공과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토론식 - 본문중심의 교재라는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는 면을 전제하고서.	
2. 현행 공과 사용 실태 및 새 공과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비평(새 공과의 미흡한 점 및 개선 방안)	1. 학습할 양, 질문이 너무 많다.	1. 교사의 준비에 따라 재량껏 조절가능	
	2. 절기(교회력)에 따른 배려가 없다.	2. 교역자의 노력 필요	
	3. 신입과의 교재가 따로 있어야 한다. 현재 각 부서별 신입과 교재는 천차만별이고, 체계성도 없다.	3. 신입과 교재는 교회에서 일관성 있게 자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4. 영아부, 사랑부, 에바다부, 영어에배부의 교재개발이 시급하다.	4. 교회의 교육목표에 맞추어 체계성있게 개발해야 하나, 이를 위한 물적, 인적자원에 구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현재는 각 부서별로 나름의 교재로 사용하거나 자체개발 중이다.	
	5. 교재의 잘못된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	5. 새공과의 경우 수정할 부분들은 건의해서 총회공과를 개정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하자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6.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나 름대로 나선형 교과과정을 통해 연계성을 가질 수 있으나, 대학부 부터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넘어 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 가? 7. 학령별로 다루어야 할 주제가 제한적이다.	6. 전체 통합교육이 있도록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대학부나 청년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7. 공과공부시에 부족한 부분은 재편집, 혹은 보완하여 교육하면 될 것이다.	
	8. 충현 교회교육 목표가 명확하 게 와닿지 않아 어떤 것이 충 현교회적인 교육인지 잘모르겠다.	8. 성경이 주교재가 되고 공과책은 부교재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9. 적용부분이 좀더 강화되어야 겠다.	9.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개 발이 시급하다	
3. 충현교회에 맞는 교재 개발)	1. 충현교회에 맞는 교재개발이 필요한가?	1. 일단 총회에서 발간되지 않는 부서들의 교재들부터 자체개발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2. 교재가 개발되려면 교과과정이라는 전문 적인 분야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에 대한 대책이 아직 불분명하다. 3. 새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 과거에 이 미 시도해 보았다가 중단되었던 자료들을 참고 하면 좋을 것이나, 그 자료들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이다. 자료보관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제안 4 에 반영
	2. 기타 사항의 의견들	1. 교재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교역 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교사 및 학생들의 심 리적 요동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2. 교재를 위한 보조자료 개발에 과감한 투 자를 해야 한다. 3. 교회에서 기말고사가 필요한가? 시험 때 문에 자연히 성경교육이 지식교육으로 변질된 다. → “교육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필 요하다.” (이승수 목사) → “ 가르쳐 지키게 하라 ”	
4. 교육기자재 에 대하여	1.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잘 사용되고 있는가?	1. 현재 비치하고 있는 기자재에는 그림, 음 판, OHP, VTR,幻灯기, TAPE, 프로젝터 등이다. 2. 적용대상(영아부, 유아부, 소년부등)에 따 라 차별성 있는 기자재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3. 기자재를 특정부서에서 집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부서에 골고루 배치되지 않고 있다. 4. 교회에 이미 확보하고 비치되어 있는 기자재들도 어디에서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으므로 체계적인 이용방법의 홍보가 필요하다.	
	2.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당장 필요한 기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예배다부에서는 시각자료가 많이 필요하다. 복이나 실로폰 등의 악기와 특히 곡조 있는 악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예배다부는 시각자료가 교육수단이기 때문에 특히 부서전용 기자재가 필요하다. 3. 부서마다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하다. 4. 탁아부는 탁아부 전용 비디오판 설치가 필요하다. 5. 실물환등기와 칠판이 필요하다. 6. 새 공과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기자재의 구비가 필요하다.	제안 9 에 반영
	3. 교육기자재의 구입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 재정 문제뿐 아니라 기자재 사용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홍보가 필요하다. 2. 교육자료의 개발을 위한 스튜디오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3. 기자재 전문 요원을 부서의 요청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자. 4. 기자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4.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그것의 장점과 더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교육기자재실을 설치하여 교육자료 및 기자재의 통합관리하여 교육에 임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시청각 중심 교육은 목상의 신앙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이의 실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3. 시각중심의 일방적인 보여주기 교육은 문제다. 4. 보고 느끼는 방식만이 최상의 신앙교육인가?	제안 10 에 반영
	5. 현재 우리교회의 교육환경은 어떠하며 현재의 형편 속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1. 공간이 문제다. 공간확보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 현재의 장의자를 개별의자로 바꾸어야 한다.(자르는 방법도 있다.) 3. 방음칸막이, 혹은 방음유리창을 설치했으면 한다. 4. 유치부실은 카페트를 걷어 내고 운동장치	제안 8 에 반영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를 했으면 한다. 5. 이어폰식 음성매체를 사용하자. 6. 교육 시간배정이 장년 중심이다. 교육적 배려를 하여 이에 따른 시간 배정을 해야 한다. 7. 성인 평신도를 위한 만남의 장소설치가 필요하다. 8. 도서관은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혹은 어린이도서실을 운영하자. 9. 강대상이 너무 권위적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10. 현재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의 업 그레이드가 필요하다. 11. 부서에 따라 기자재 사용 수준이 상이하다.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12. 홈 페이지 제작으로 교육의 지평을 넓힌다.	

교사 분과

1. 분임토의 주제 :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사양성 및 교사의 재교육 강화, 교사 및 부서장의 겸임봉사 금지에 대한 검토

2. 주제 설정의 배경 : 바른 교회학교 교육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질을 갖춘 교사이다. 그런면에서 교회학교는 사회학교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의 자격 부여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교사 개인의 심사 기준이 없이 교사 양성부를 수료하기만 하면 정교사로서 인정하는 제도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의 연령과 맞지 않는 교사 개인의 교육 방법과 학생의 관심은 아랑곳없이 교사 혼자만의 열의는 결국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겠다. 아무리 자질이 있고 창의력과 열의가 있어도 개별 학생의 눈 높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학생에게는 지루함 뿐이고 학생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더욱 교사의 임명에 대한 중요함과 각 부서별 교육의 중요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1. 교사양성부 운영	1. 교육 과목중 교사가 알아야 할 교육적(심성, 인성 등) 기본 소양교육내용 부족 - 신학 : 16시간 40분 - 교육학 : 5시간 - 실무교육 : 6시간 40분	1. 실제 성경공과 공부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마음 가짐을 갖도록 한다. 이를 위한 교육적 기본 소양교육 내용을 보강한다. (학생 이해능력, 학생 상담심리, 상담기법 표현능력, 주교 운영론, 기독교교육 등) 2. 실제 수업에 필요한 행정과 교수법을 교육한다. 실제 수업을 보고 분과별로 토론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3. 교사는 봉사직임을 깨닫고 사명감 있는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 실무형 교육과 리더쉽 교육강화한다. 5. 교생실습을 강화하여 실질 수업 경험한다. 6. 학생들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부소양교육을 교사양성 시간에 배정하여 엄격히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다.	제안 4 에 반영
	2. 전 교육과목 강사 목사로 구성 신학(10과목), 교육학(4), 실무교육(5)	1. 강사를 다양한 전문가로 초빙	
	3. 교사양성정책 미흡 수료율 74.7%	1. 중도 탈락자(25.6%)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2. 교회 교육이 중요한 만큼 모든 자료를 보존하여 참고로 한다. 3. 양성부 과정을 반드시 수료한 후에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	1. 1년을 주기로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실습을 통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6개월 이론수업, 6개월 실제수업) 2. 실습부서에서 1개월간에 모든 과정을 실습하도록 한다.	
	5. 입학자격 및 심사	1. 입학할 때 면접을 통하여 교사의 사명감을 확인한다. 2. 신앙의 정도와 책임감을 심사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6. 재교육의 형식적 과정	1. 획일적이고 일원화된 교육에서 각 부서별 특성에 맞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연령, 심리, 상담등의 교육) 2. 교육과정을 실질적인 교회교육에 구체화 시켜 반영한다. 3.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전개하여 피교육자가 수시로 성취도를 진단하며 평가한다. 4. 재교육 내용은 영성 및 실무교육 (세미나 형식) 위주로 한다. 5. 영성훈련과 재 충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항상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영혼들을 맡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	
2. 교사의 전문화	1. 학교교육뿐 아니라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달란트 중심의 신앙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사 보다는 단지 헌신적이거나 인간관계 적인 측면의 교사가 임명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1. 각 단계별 교사 양성의 차별화 유아 전문교사 양성, 아동 전문교사 양성, 청소년(중·고) 전문교사 양성, 대학, 청년 전문교사 양성, 수화 전문교육 양성, 사랑부교사 양성, 가르침과 활동을 통한 교육(섬김, 봉사)의 전문화 필요 [레크레이션 전문교사]	제안 2 에 반영
	2. 특수부서(에바다부)에 양성부 출신의 교사부족(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교사자질 향상이 필요함)	1. 양성부에서 특수부서 전문교사 양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	
	3. 교사충원배려 (특수 부서)- 학생1명, 교사1명이 필요	1. 의사전달 부족으로 인해 교사의 수가 부족하니 교회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3. 교사의 순환	1. 교사가 한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머물 경우 장점과 단점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1. 각 단계별 교사의 순환 영아 ~ 유아 ~ 유치 초등1 ~ 초등6 중등1 ~ 중등3 고등1 ~ 고등3 대학1 ~ 대학4 단계별 차별화를 한 후에 그 단계내에서 순환하여 맡겨진 학생의 성장시기의 한 단계를 계속 지켜보며 교육 (졸업후에는 다시 제일 아래 학년 담임으로 시작)	
	2. 부감이나 처·과장등 책임있는 봉사자들의 장기봉사 (장기 봉사로 인한 폐단이 너무 많다)	1. 은사와 능력에 따라 많은 교사들을 봉사케 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3. 전문교사 양성	1. 그룹별 순환제 실시 유·초·소·중1·중2·중3등에서 순환하여 전문가 양성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4. 교 육 전 문 교역자 임명	1. 교역자들의 이동이 심하여 지 속교육이 약함	1.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교역자를 영입한 다. 2. 해당 부서에 3년 이상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구와 겹침하지 않게 한다.	
5. 교사 임명	1. 교사임명에 대한 인사원칙 문 제 - 각 부서의 교사가 부족함을 논하면서 자질도 검증안된 (친분 관계)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또 부족한 교사를 충족할 수 있는 방 안 - “교사 양성부”과정을 하지 않 고 교사로 임명	1. 지도교역자, 부장, 부감의 배정에 충분한 검토를 한다. Ex) 부감이 교사경력이 전혀 없 음 2. 임명하기 전 각 부서장과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주간) 3. 초임교사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적성과 능 력을 고려하여서 배치한다. 부서별 전문가 선발 4. 각 부서에 봉사하는 처장님들을 교사로 임 명하여 그 부서에 깊이 관여하면 각 처에서 일 을 계획, 실천하는데 더욱 잘 알고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5. 분반공부시 정원제 실시 교사부족 해소 6. 교회의 방침에 불순종함으로 안일함에 빠 지게 되고 그 부서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다. Ex) 인맥구성, 텃세, 인본주의, 사람중심 7. 교육위원회에서 현황파악 후 문제점 찾아 신축성 있게 임명(교사수 확인 교사임명 정확 히 할 것)	
	2. 교사의 자격 및 심사 기준	1. 각 부서에 임명할 때마다 해당 부서에 맞 는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이유는 각 학년별로 학생연령에 따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 부 서에 새로 임명된 교사의 부서별 실무교육을 실 시한다. 2. 정기적인 교사이동의 명문화 및 철저한 시 행 준수 3. 기존 교사라도 문제교사 수시 정리 (부장 면담지도) 4.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미달시 재임명 보류 5. 교사에 대한 우대 요망 6. 부장, 부감의 경험자 임명 7. 분반공부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간의 교사 수 조정	
	3. 부서장의 겸임봉사와 교사들 의 겸임 봉사 해소	1. 각 부서의 부장은 책임진 부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곳의 중복임명을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또한 교사도 여러 부서의 중복 봉 사로 인하여 온전한 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다. 교사 임명을 할 때에 적성과 실력에 맞는 부서에 배치 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4. 교사 인사이동의 시기	1. 10월경에 지도 교역자, 부장, 부감을 임명 하되 12월 총회 때 이동한다. 2. 교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6. 교사의 자 질향상	1. 교수 학습능력 부족	1.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자체 연수를 하여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 신앙지도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다. (연2회) 2. 학습 내용준비를 잘 하도록 학생들을 이끌고 학생들의 매일의 믿음생활 확인한다.	
	2. 학생 심방과 관리 소홀 - 심방시 학생면담 문제점 발견	1. 학생 심방을 1년에 한번은 꼭 한다. 학생의 개인 사정을 알 수 있고, 이해하며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 부모님과 합심하여 신앙지도를 한다. 3. 심방이 어려운 교사를 대신하여 심방과장이 심방을 전담한다. 4. 심방시 교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전달한다.	
	3. 상담과 대화기법 미숙	1.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학생과 상담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2. 학생이 이야기 하는 어떤 문제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 3. 중등부 이상 부서 상담실 운영한다. 4. 문제학생화의 예방 및 학생관리한다. 5. 교사에 대한 상담교육 실시한다.	
	4. 책임감과 성실성 부족	1. 신입교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2. 교사 심령 부흥회를 년1회 이상 한다. 3. 교사의 바른 자세 확립이 필요하다. 4.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복장, 몸 차림등 (미니스커트, 핫팬티, 청바지, 지나친 화장, 머리색깔)	
	5. 교사의 사명감	1. 중생된 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가르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자세로 가르치며 자신의 소양도 개발한다.	
7. 교사의 자 기 계발	1. 재교육의 교과과정이 없다.	1. 안식년제 도입 6년 지난 후 7년째 1년간 교육 받음 (성경공부) 2. 학생별로 기도한 기도제목과 시간을 기록한 기록장을 제출 (영성 훈련) 3. 가르친 교제에 대하여 개발한 모든 자료를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파일에 수집 보관한다. 4. 토론식 수업으로 전개하여 열린 교육을 한다. (공개수업) 5. 타교회 탐방, 외부기관 위탁 교육	
	2. 연구수업을 통한 자기 반성이 없다.	1. 교사 상호간에 서로를 평가하여 개선해야 한다. 2. 수업방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소개한다. 3. 연구수업 평가시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활성화를 기함 4. 부서별 분임토의를 실시하고 보고서 제출 (연구하는 교사상 구현) 5. 교육세미나 연1회 시	
	3. 교사교육이 대부분 현장과 거리가 있는 교육이 이루어짐	1. 각 단계별 현장과 접목된 교육이 필요함. 2. 일방적 강의가 아닌 교사들 자체의 연구와 토의가 이루어지는 교사의 연장교육이 필요함.	
	4. 행정의 간소화	1. 행정서류·문서의 간소화 2. 문서 보류기간을 규정하여 과년도 문서는 교육위로 이관하여 자료기록 유지.	
8. 교육자료실	1. 교사들이 자료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유는 교재자료 부족과 교재 연구실이 없음. 교사를 위한 자료실과 연구실이 없어서 교사교육과 교육의 향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움(도서관 없는 학교교육과 같음)	1. 교사를 위한 교육 자료실을 비치하여 운영한다. 2. 시청각 자료의 자율적 이용 3. 교사들의 시청각 자료준비실 및 연구실이 필요하다. Ex) 작업실 작업, Ex) 연구실 참고서적, 열람실	
	2. 시청각 교육의 미약함	1. 성지순례 (비디오테이프), 출애굽 과정, 예수님의 사역지등을 수련회(성경학교)때에 보여준다면 좋은 교육이 된다. 2. 사도들의 전도여행 지도자 필요하며, 많은 시청각 자료가 부족하다.	
9. 반관리	1.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1. 교사는 학생과 더불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드림으로써 예배의 본을 보인다. 2. “나는 선교사반” 학생 모두가 매 주일 공동으로 선교헌금을 드린다. 3. 새 친구와의 만남을 위해 연초부터 전도할 친구를 정해 놓고 합심하여 기도한다. 4.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어 일년에 일독하게 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2. 반 분위기 조성	1. 반 전체 분위기를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장, 부반장 임명) 2. 출석을 부를 때 일주일간의 생활을 점검한다. 3. 반 주소록을 만들어 친구끼리 전화하고, 선생님께도 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5.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려 하기 보다는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며 교육해야 한다.	
10. 교사의 인식변화	1. 교사가 가지는 자부심이 있는가?	1. 교사로서 교회의 어떤 봉사적 보다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2.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중현교회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자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2. 교회학교 교사로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가?	1. 헌신하지 못하는 교사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맡겨진 영혼들이 죽어가지 때문이다. 2. 교사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교사가 존재한다.	
	3. 교사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도를 나타내겠는가?	1. 하나님 앞에서 매 주일, 매월 헌신도를 스스로 측정하여 100%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점검한다.	
11. 교회의 인식변화	1.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1. 많은 봉사자 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자 2. 교사의 헌신은 1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하기에 교사로 세우라. 3.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모든 잠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 (교육 자료등의 투자)	제안 7 에 반영
	2. 교회가 어떻게 교사의 자부심을 갖게 도울 것인가?	1. 교사를 위한 시상을 교회적 차원에서 실시하라. 2. 교육환경 개선을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시적이 되도록 하라.	
	3. 대학부, 청년부 회원들의 교사봉사 유도	1. 집회시간을 조절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서 교회학교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4. 교회학교의 사랑 부족	1. 학교교육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교회교육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 2. 교육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제안 2 에 반영
	5. 토론의 핵심이 각 부서마다 달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유년·유치·초등·소년·중1, 2, 3] —고등·대학·청1 —청년2·장년·소망 각 부서마다 토론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나온다. (나누어서 토의)	
	6. 교사교육의 부족	1. 양성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사양성 2. 전문가 교회학교 교육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7. 교회교육이 학교교육을 능가하지 못함	1. 내용 :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의 각 특성을 파악하여 지도한다. 2. 방법 : 열린교육으로 바꾸어야 함(천국일군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함)	
결론		신자의 올바른 믿음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하여는 교사의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 사랑함이 불타야 하며, 사명감의 확신이 있는 교사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사양성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인식 변화와 교사의 인식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교사의 전문화 교육과 교육 자료실을 운영하므로 교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교사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임명하고 교육 전담 교역자를 임명하여 지속적인 교회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	
교사의 자격		1. 영적 기준 1) 올바른 신앙인 바른 신앙을 소유할 뿐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어야 한다. (마 16:16) 2) 구원의 체험자 거듭난 체험(요 3:3)과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사실을 깨닫고(요일 5:13) 감사하는 이 3)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교사의 스승되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요 14:26) 4) 영혼을 사랑하는 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 사실을 깨닫고 (마 16:26). 특히 어린이의 영혼이 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죽되지 않게 지도하며 (마 18:6). 그들의 목자가 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랑과 사명감이 넘치는 이. 2. 교육적 기준 1) 어린이 이해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깊고 (마 18:3) 그들에게 알맞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 (고전 3:1-2). 2) 지식 교사는 자기가 알고 체험한 범위 내에서 교육할 수 있기에 지적(知的)으로도 부요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요 3:10, 딤후 3:16). 3) 표현 능력 교육 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 뿐 아니라 이를 알기 쉽고도 정확하게 표현함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사무 능력 각 부서의 임무를 맡거나 담임의 사무를 맡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외적 기준 1) 세례 교인 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중 세례 받은 이 2) 열의 있는 교사 매 집회마다 빠짐 없이 참석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 4:2) 3) 모범적 행동인 깊은 지식과 효과적인 교수 뿐 아니라 스스로를 잘 가르치고 (롬 2:21)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 (고전 11:1)	

행사 분과

1. 분임토의 주제 : 교육목표에 적합한 행사로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2. 주제 설정의 배경 :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교육목표와 학생들을 이해하고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사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1. 교육목표에 맞는 행사 실시	1.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사들이 교육목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1. 교육목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행사마다 비교검토가 요망된다. 2. 지도 교역자와 부서가 계획하는 목표가 맞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도 교역자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 각 부서의 특성화 행사 도입이 필요하다.	제안 2에 반영 행사에 관한 것은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이 정해지고 매년 행사 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면 대부분 해결 될 수 있다.
	2. 절기행사를 통해 절기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들어 나는가?	1. 절기행사를 재검토하여 성경적 의미를 살리는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행사를 변화 있게 진행하고 성경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3. 절기행사는 말씀을 강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교육목표와 절기행사의 의미에 맞는 기본적인 행사의 뼈대를 정하고, 행사의 양보다는 행사의 질적 충실함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3. 교육목표에 맞는 다양한 행사가 개발되고 있는가?	1.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개발하여야 한다. 2. 일부행사는 개발되고 있다.예) 아기와 엄마들만이 아니라 아빠들의 참여가 많아졌다. 3. 형식적인 프로그램일 때가 많으므로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2. 행사 참여자의 적극성	1. 행사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행사에 대한 홍보와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2. 행사를 통한 보람을 찾도록 충분한 교육이 요망되고 준비가 필요하다. 3. 행사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므로 시대성에 맞는 행사로 전환하여 관심을 갖게 한다. 4. 적극적인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 행사 참여가 적을 때에는 기도부족과 홍보 부족으로 알고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5. 행사가 준비하는 사람 위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연습이 있어야 한다. 6. 행사 참여에 소극적인 교사는 열심 부족으로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로 권면이 필요하다.	
	2. 학생들이 행사와 의미 및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1. 행사에 관하여 관심이 적고 시간에 구애를 받아 적극성이 적으므로 학생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 행사의 의미가 사라지고 시간 보내기 식으로 하는 행사는 없애고 관심을 집중시킬수 있는 새로운 행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너무 많은 행사와 사전 준비가 부족한 행사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행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행사 계획	1. 일년 행사 계획이 그 시기와 상황에 적합한가?	1. 부적합할 때도 있다. 한달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 준비하는 교사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므로 통합이 요망된다. 예) 새친구 초청잔치와 성경학교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등 2. 1년 행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이 많으므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3. 년초에 일년치 행사 전부를 계획하는 것보다 4분기로 나누어서 행사를 할 때 계획과 실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2. 행사계획과 각 부서의 영적 상황과 상관 관계가 있는가?	1. 영적상황과 상관있는 행사가 많지만 형식적일 때도 적지 않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재점검이 요망된다. 2. 총체적으로 전교회학교 행사에 대한 검토와 교정이 필요하다.	
	3. 행사담당 교사의 전문화가 필요한가?	1. 전문화 된 교사팀이 구성되어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예) 수련회 성경학교등의 행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연수원 운영이 필요함. 2. 대규모 행사일때에는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전문화를 고집하다 보면 행사 자체내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미숙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행사는 내부의 달란트 있는 교사 중심이어야 한다. 3. 사전 준비 부족한 경우 부실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충실한 준비가 요망된다. 4. 교회차원에서 기획팀을 경험 있는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각 부서 진행자들에게 한달에 1, 2회의 행사교육을 한다. 5. 일부 Key member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4. 1년전 계획된 행사를 그대로 해야 하는가?	1. 꼭 그럴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 장기계획성 행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준비에 차질이 없도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록 하여야 한다. 2. 행사는 1년전부터 계획되어야 한다.(예산도 적은데 무리하면 교사들이 특별 현금내에서 운영하는 모순도 생긴다.)	
4. 기타사항	1. 경직된 예배 집회로 흥미 상실	1. 토의 문화 질의응답을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GBS 친교를 통한 교회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전환)	
	2. 지침서 제정	1. 교회학교별(년중별)표준 행사 지침서의 제정 및 발간이 필요함.	
	3 자율권 부여	1. 여름 겨울 수련회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상반기,하반기 실시 겹치기 없애기)	
	4. 부서간 협력	1. 협력할 수 있는 부서끼리 함께 진행하는 효과를 극대화 한다.예) 중등 1, 2, 3부 함께 2. 행사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3. 그 부서만의 개성있는 행사가 전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과거행사 탈피	1. 과거의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행사도입이 필요하다.	
	6. 부서별 선물 구입	1. 행사시 선물준비에 애로점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교육국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7. 기타	1. 동정의 행사일지라도 각 부서별로 향상된 내용으로 행사 실시 요망. 2. 비성경적인 부분을 찾아 개선 요함. 3. 행사개발진행 전문연구기관 필요 4. 교회행사가 형식보다는 말씀안에서 이루어지고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성과위주 탈피 요망. 5. 과다한 행사를 줄여야 한다. 6. 형식적인 행사 지향 7.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함.	
5. 각종 교회 학교 행사들에 대해	1. 교사특별회의	1. 참석인원이 적으므로 획일성 탈피, 자율성 부여(장소등)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도록 2. 예산이 부족하므로 넉넉하게 예산을 지원함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2. 교사교육 (세미나)	1. 전문강사가 필요하므로 세미나 제목에 맞는 전문인 강사를 초청하여 분야에 맞는 교육이 요망.	
	3. 학부모 교육	1. 전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화. 2. 부서 특성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지길.	
	4. 새 친구 초청잔치	1.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므로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홍보해야 한다. 2.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맞아야 한다.	
	5. 계절학교 -가) 겨울 -나) 여름	1. 프로그램 변화와 행사의 특성화가 요망되므로 여름과 겨울에 맞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는 행사로 합숙 연합 행사연구 2. 각 부서별로 연구팀 구성, 전문화 요망.	
	6. 학생심방	1. 심방 방법들을 교육할 필요 있음. 2. 교사 교육 철저히 사명감 고취. 3. 심방비 현실화 요망.	
	7. 사무검열	1. 필요성 인지도가 낮으므로 행정의 필요성 교육 (교사실제 교육요망) 2. 불필요한 양식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8. 연구수업	1. 교사의 전문화로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시청각 교재지원이 요망된다.	
	9. 성경이야기	1. 소수인원 참석으로 효과가 적으므로 방법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연결식으로 바꿈.	
	10. 절기행사 1) 부활절 2) 맥추절 3) 추수감사절 4)성령강림주일	1. 절기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포함하여 설교케 하며 2. 적극적인 행사계획 수립 및 홍보 필요하고 3. 현실에 맞는 선물로 학생들에게 절기 행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함(부활절 삶은 계란 등장은 계고 요망)	
	11. 초청 전도회 (총동원 전도)	1. 불신자가 극히 적게 참여하므로 전도방법을 적극적 방법으로 전환 요망 2. 연합행사 실시로 예산등 절감 (유, 초, 소년부 또는 중1, 2, 3부 등 연합)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12. 반별친교	1. 교사들에게 예산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되므로 충분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요망됨	
	13. 어린이 주일	1. 성경적 의미 부여와 화끈한 축하행사 요망. 2. 교회문화 도입필요.	
	14. 아버지 주일	1. 부모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찾고 진정으로 부모님 사랑을 느끼게 함.	
	15. 스승의 주일	1.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활을 부각시키고 2. 스승에 대한 참 사랑을 교육하고 프로그램 개발	
	16. 찬송가 부르기	1. 장소와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여 찬송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함. (음악 발표회 장소와 무대등 시설요망)	
	17. 수료생 기념촬영	1. 종합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혼잡을 피함 (미리미리 찍음) 2. 교회학교 각부 수료생 기념촬영을 제출받아 역사적 자료로 보관요망.	
	18. 성탄절	1.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시청각등 자료를 확보하여 확실한 의미를 갖도록 하며 프로그램을 각 부서에 맞도록 개발한다.	
	19. 수료 및 진급	1. 진급하는 날 각 부서가 긴밀한 연락으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게 함 2. 간소화하고 기억에 남는 행사를 요망	
	20. 주기도문 우기	1. 전체가 참석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고 외우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21. 생일축하	1. 교회문화에 맞는 생일축하 노래 개발. 2. 각 부서에 맞는 선물을 구입케 요망.	
	22. 교사 타고 견학	1. 시간을 낼 수 있는 선생들로 특별팀을 구성하여 탐방 체크 리스트를 작성. 레포트를 제출케 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23. 성경암송	1. 짧은 성경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단계별로 지속 적으로 외우게 한다.	
	24. 성가대 훈련캠프	1. 연관있는 부서끼리 연합 훈련이 필요하고 2. 전문성있는 강사를 초청하여 짧은 훈련기간을 유익하게 한다.	
	25. 교사심방	1. 교역자와 부장단이 교사심방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6. 십계명, 사도신경 외우기	1.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부모님의 독려가 필요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됨	
	27. 그림그리기	1. 평소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도가 요망된다.	
	28. 교사야외예배	1. 전도회등의 모임과의 일정 중복으로 전체 교사가 참여하기 힘든 부 분이 있다.	
	29. 성경퀴즈대회	1. 신세대 학생들이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준비와 개발이 현재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것이 현실이나,이런 자료들이 공유되어지거나 검증되어지지 못했기에 20여년전의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되어 온 현실이다. 2. 행사를 학생들이 수용하기 좋은 양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교육부서간 네트워킹이 설립 되어져야 한다. 3.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의 성경퀴즈가 되어야 하지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30. 선교주일	1. 평상시에 꾸준한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방법(E-Mail)을 이용한 선교사님과의 정보 교환등이 필요하다. 선교주일에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선교사님의 소식을 나눌 수 있고,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31. 학습평가	1. 학습평가가 형식적이다. 사실상 아이들에게 무의미하다. 2. 없어져도 되는 행사다.	
	32. 사 정 회	1. 구체적인 자료준안이 필요하다.각 부서별 자료 양식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전산화 방식도 현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의 양식이 달라서 긴급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한다. 신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학교 전도전략 회의	1. 중등 1, 2, 3부 간의 연합적인 모임이 필요하다.	
	34. 심방사례 발표	1. 직분자 자녀들에 대한 심방이 난이한 점이 있다. 교회에서 대심방 기간을 두었듯이 교육부 심방기간을 별도로 1-2월중 한달정도 두어서, 전 교회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한 심방이 진행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심방 사례에 대한 발표가 교회 차원에서 진행되어 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35. 세례학습교육	1. 2-3주간의 문답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세례 학습을 충분한 교육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교육부서 차원에서 세례반 교육을 1-2개월 정도의 기 간을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와 생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36. 해의 단기선교	1. 현재 단기선교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선교 헌신자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그다지 좋지 못한 것 같다.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기도 한다. 중등부 학생들도 함께 포함시켜 갈 수 있다고 본다. 단기선교 비용을 자비로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37. 수화교실	1. 부서내 폐쇄된 운영 → 교회차원에서 관심 필요 2.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잘되어 있음. 3. 일시적,재정의 열악→ 복지관 사용으로 인한 해결 강사료 지급복지관차원)	

재정 분과

1. 분임토의 주제 : 각 교육단계에 따른 적합한 예산에 관해

2. 주제 설정의 배경 : 본 교회 교회학교 체제는 영아부에서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차이와 특수 학부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각급 학교에 적합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교육현장의 실정과 예산책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 토의코자 합니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1. 특성에 맞는 교육계획을 위하여	1. 매년 같은 행사의 반복이다. - 예산의 제약으로 교육내용의 변화를 줄 수 없다. - 교육단계별(부서별) 특성있는 교육계획이 없다. (예산의 변화가 어렵다.) - 사업과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할 시간이 없다. - 11월중에 행사 및 예산이 계획되는 점이 문제다. (새로운 조직에 의해 변한다.) - 교육의 질보다 모임위주다. - 행사의 분명한 목적 없이 의무감 또는 전년에 했으니 한다.	1. 현행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교육정책 수립을 제도화 한다. [실시방법] 1) 매년(9월) 전 기간(9월 8월)의 사업 평가를 하고 순위에 따라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교육연구소 주관으로 공동의 워크샵을 갖는다. 3) 이 때 신규사업도 제안되고 채택되는 신규사업은 기존 교육 및 행사와 대체한다. 4) 워크샵의 결과를 가지고 교회차원의 차기 년도의 교육방향과 적정예산의 규모를 결정하여 각 부서에 지침을 10월내에 준다. * 이는 매년 교회학교 사업 전체의 균형과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예산의 조정기능을 교회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효과를 얻는다. 아울러 공동 워크샵의 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향이므로 부서 책임자의 이동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제안 6 에 반영
	2. 매년 같은 행사의 반복이다.	2. 현재의 예산 결정절차를 변경한다. [현행] 예산편성지침 → 각부서 예산편성 → 위원회별 예산제출 → 기획위 예산조정. (당회결정). 통보 → 각 부서 집행 [개선] 워크샵 개최(평가. 교육정책수립) → 예산총액 확보(당회) → 교육방향 지침 통보 → 각 부서 예산편성 → 위원회별 예산 제출 → 기획위심의 조정(당회결정)통보 → 각 부서 집행	
	3. 획일적인 단가 배정이다. - 사업에 맞는 예산배정이 안된다. - 과다한 신청으로 사업의 타당성 판정과 각 부서에 공정한 예산배정이 어렵다. - 예산부족으로 개인 찬조금에	1. 교육 예산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실시방법] 1) 각 부서는 교회학교 전체의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시 자체적으로 예산용도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를 검토한 후 예산안을 제출한다. 2) 이때의 전제조건은 부서별 총액한도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의하여 충당된다.	3) 총액 한도 내에서의 단가 결정은 부서 자체의 결정에 의한다. • 이 때 예상되는 부작용은 부서별 상대적 비교에 의한 우열감이 노출될 수 있으나 매년 계속적인 평가와 조정으로 극복해야 한다. 2. 총 교육 예산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시방법] 1) 현재의 교회 총 예산규모의 10%선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 2) 교육위 예산을 총예산의 10%선 (현 예산보다 약 1.7% 증가)에서 배정할 경우 약 167백만원의 재정이 확보되어 연간 1인 평균 약 3만원의 교육비 실 혜택을 줄 수 있다. 3) 확보된 예산의 배분 방법은 1-2의 방법에 의한다.	제안 6 에 반영
2. 예산운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 예산 집행과정이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많다. —매월정산 및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당월 예산집행 확인 후 다음달 예산수령이 가능하므로 예산수령 후 사업이 연기될 경우 영수증 처리가 어렵다. —정확한 영수증 확보가 어렵다. —정산이 복잡하고 어렵다. —항목대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행사시 예비비가 없어 어렵다. —단가가 비현실적이라 인원수로 조정한다. —감사를 위하여 불필요한 증빙장부를 만들게 한다.	1. 회계 정산제도의 간소화와 예산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실시방법] 1) 항목별 예산책정기준은 명확히 하되 (예산신청과 배정시) 목간의 운영은 부서에 자율성을 준다. —이 때 목 내에서의 자율집행은 허용하되 목간 전용은 금한다. 즉 예를 들어 전도훈련 예산을 수련회 예산으로 쓸 수 없다. 2) 회계정산제도를 간소화 한다. 3) 항목별 예산책정과 사용의 자율성은 주되 사업실시 후 결과 보고의무를 제도화하여 책임감을 부여한다. 4) 엄격한 총액 한도제를 실시한다. 즉, 연간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사업은 엄격히 통제한다. 5) 해당 위원회는 사업결과 보고를 심의하여 당회에 보고토록 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한다. ※ 사량이 담긴 재정운영이 되어야 한다.	
3. 기타 소수 의견	1. 영아부에서는 간식이 학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1인당 1개씩만 주는 것이 문제. 2. 공통단가를 정해서 그 한도내에서 쓰다보니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다. (확실적 예산) 3. 교육의 질보다 모임 위주다. 4. 차등 배정할 사업의 특성이 없다. 5. 꼭 필요한 사업인데 특별청원을 포기 6. 사업에 맞는 예산 배정이 안	1. 1인당 1년전체 단가를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총액 배정을 해 주셨으면) 2. 예산이 10월에 작성되기 때문에 최소한 처장까지는 미리 배정 3. 교육에 투자해야 할 이상적인 예산이 과연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현실화 해야 한다. 4. 각 부서의 부장과 지도교역자와 처장들이 세운 계획에 대하여 해당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한다. 5. 이미 통과된 예산은 사업에 관계없이 부서	

토의 영역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개선안 및 제안	비 고
	된다. 7. 실무책임자는 익년 1월에 바뀌는데 예산은 10월에 작성 8. 교육단계에 따른 적합한 예산(행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7. 교육에 맞춘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8 사업계획서의 예비비 항목이 확정되어 있으나 예산수령이 안되고 있다. 9. 예산 수령에 따른 간소화 10. 각 교육부서의 재정이 부족될 때 예전의 감사헌금을 찬조헌금으로 충당한다. (회비 양성화) 11. 예배다부, 간식대 전체 50% 삭감을 톡없이 부족되어 특별헌금 충당한다. 12. 새가족부, 천국 일꾼양성이 5대 목표중 하나이나 전체예산이 교육비 1인당 6.5% 책정근거는 어디에 기인했는지? 13. 교사부담, 교육부서 예산부족이 찬조로 충당되는데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어 노출이 어려우나 이 문제를 양성화 할 것인지? 14. 회계의 문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든 일이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 (예: 교회예산 간식300원 + @ = 1000이 필요한데 쓰고도 노출치 못한다.) 15. 각 부서별 선물 (생일, 신입생 환영, 간식) 을 교회에서 각부에 맞도록 일괄구매 배분문제? 16. 소망부 1인 교육비 12,000원 대학부 1인 교육비 164,000원 (차이가 큼)	장의 결재로 언제든지 결재한다. 6.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당회통과) 부서의 회계 → 부감 → 부장 → 교육위원장 → 출납까지 수령시에 복잡화 되어 있다. -통과된 예산에 대하여는 회계 → 출납 직접 결재한다. (참조, 예산서 출납 보관) 7. 부족한 예산찬조 충당 투명성 문제 8. 교회 일괄구매의 효율성	

교육세미나의 평가와 제안

1. 세미나의 의미

이번 세미나는 23개 교회학교의 부장단, 지도단, 처장단 및 10년 이상된 교사들이 총 망라하여 참석한 명실상부한 충현교회의 교육세미나였습니다.

2. 세미나 토의의 중요성

세미나에서 6개 분과로 나누어 토의한 내용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46년간의 충현교회 교회교육에 대한 반성, 후회, 실제적인 대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

3. 제안 내용의 중요성

이 제안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많은 봉사자들이 오래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고민하며 느끼고 생각해 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여론이고 그들이 지적한 문제점이며 그들이 제안한 제안입니다.

4. 충현교회 교회교육의 변혁을 꿈꾸며

차제에 2000년에 들어서면서 충현교회 교회교육의 일대 변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회학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장을 여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연구소는

이 제안과 아이디어를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선별하여 제출합니다.

제안 설명 및 실행 계획

1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확정

1. 제안 설명 및 방향

· 교육목표

1) 교육목표에 대한 논의는 늘 이야기 되어 왔고 그때그때 해결되는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 될 때 대안과 그에 대한 실천이 없는 상태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는 각 문제 사항들이 명백한 진술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충현 교육 헌장”과 같은 명백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2) 교회가 지향하는 분명한 교육 목표와 이에 따른 각 부서의 교육 목표가 정해져야 합니다(이는 지도부가 바뀌어도 바뀔수 없는 그런 것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의 중점 사항을 정한 후(예를 들면 금년은 선교, 봉사 등) 각 부서가 해당연도의 교육목표를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각 부서별 교육목표는 각 단계별 성장과정을 고려한 교육 목표여야 합니다.

· 교과과정

1) 기독교 교육의 특수한 상황(성령의 역사)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교과과정은 지식 주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지식적인 요소로만 교과과정을 구성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3) 지금까지는 지식적인 면의 교과과정으로 일관되어 왔으나 최근에 각 단계별 성장과정을 고려한 교육 목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교과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어렵습니다.

· 교육목표는 금년중에 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과정은 금년도부터 작업을 하면서 결정되는대로 각 부서에서 적용토록하여 2000년 말까지는 완성토록 합니다.

· 새신자에 대한 교과과정은 빠른 시일내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제안 계획

1) 소위원회 구성 / 각 교육위원회 지도 교역자와 서기 장로 및 교육연구소 실행위원2인으로 구성.
형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교체 될 수 있다.

소위원장과 서기(실행위원), 회계(실행위원)를 둔다.

2) 논의할 내용 : ① 교회 교육목표(또는 교회학교 교육목표),
② 부서별 교육 목표
③ 각 부서 교과과정

2) 일정 / 1999년 09월 30일 : 교회 교육 목표안(또는 교회학교 교육목표안) 확정
1999년 10월 06일 : 10월 정기 당회에 상정, 2000년도부터 적용
2000년 08월 30일 : 부서별 목표 및 교과과정안, 9월 정기 당회에 상정,
2001년도부터 적용

2 교육위원회 조직 개편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현행의 교육위원회는 행정을 위한 조직이기에 교육 현장에 대한 실제적 지원이 어렵습니다.
- 2) 현행 교육위원회를 피교육자 중심의 그룹별로 묶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 조직, 예산, 행사, 목표, 교과과정 등 모든 것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3) 현행 3개 교육위원회를 1개로 바꾸고 산하에 10개의 독립 그룹을 둡니다.
 - 1그룹 /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3개 부서)
 - 2그룹 /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3개부서)
 - 3그룹 / 중등1부, 중등2부, 중등3부 (3개부서)
 - 4그룹 / 고등부, 대학부, 청년1부(3개부서)
 - 5그룹 / 청년2부, 장년1부, 장년2부, 장년3부, 소망부 (5개 부서)
 - 6그룹 / 탁아부
 - 7그룹 / 사랑부, 에바다부(2개 부서)
 - 8그룹 / 신혼가정부
 - 9그룹 / 영어교육부
 - 10그룹 / 새가족부
- 4) 교육위원회는 교회학교의 대표로서의 역할만 하고 모든 실무 기능은 각 그룹이 가지며, 교육위원회는 각 그룹의 장들로 구성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당회 상정 안건 심의와 각 그룹에 대한 통일된 행정만을 취급합니다.
- 5) 각 그룹은 현행 교육위원회의 행정 기능 외에 기획, 예산, 연구 등의 모든 기능을 갖습니다.
- 6) 그룹에는 각 그룹의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둘수 있습니다
 - 서기 / 그룹 내의 모든 행정 업무 및 서기 업무를 담당. 문서관리 업무.
 - 회계 / 그룹 내의 모든 재정 문제 담당. 예결산 및 집행.
 - 기획국 / 각 그룹의 방향 설정, 그룹의 행사, 그룹내의 조율 및 조정 업무, 통합적인 관리 업무.
 - 인사국 / 각 그룹 내의 교사 임면 및 기록 유지, 인사 관련 모든 사항
 - 행사국 / 행사 관련 업무, 그룹 내의 통합 행사, 행사 개발, 행사 전담 교사 교육 및 연수 등.
 - 연구국 / 각 그룹 내의 교회학교에서 연구 교사 2명으로 구성. 각 부서의 중장기 발전책 연구.
 - 교재국 / 교재 개발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부교재 및 보조자료, 시청각 자료, 영상 자료 관련.
- 7) 각 그룹의 장은 그룹 내의 선임 부서장이 하며 그룹 내의 모든 조직은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가 담당토록 합니다.

2. 제안 계획

- 1) 99년 9월 정기당회에서 승인후 2000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2) 교육연구소와 기획위원회가 변경되는 조직의 세부 부분을 마무리하고 구체화하여 10월 정기당회에 상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각 부서 새가족부(신입부) 교재 편찬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각 부서가 새가족부(신입부)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각 부서별 교과과정 및 교재가 제

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 2)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차제에 확정, 편찬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교재는 새신자용과 기신자용으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 4) 교회학교 각 그룹을 한 덩어리로 보고 집필한다. 서로 합의에 따라 그룹을 2, 3개 묶을 수도 있다.
- 5) 총괄은 교육연구소 교재분과에서 한다.

2. 제안 계획

- 1) 편찬위원회 구성 / 각 교육위원회 지도 교역자와 교육연구소 실행위원(2인)으로 구성한다.
편찬위원위원장과 서기(실행위원), 회계(실행위원)를 둔다.
- 2) 논의할 내용 : ① 새신자부(신입부) 교육 과정(내용 및 기간)
② 각 그룹별 또는 부서별 교재 집필 및 편집
- 2) 일정 / 1999년 10월 15일 : 교재안 제출
1999년 10월 30일 : 교재안 퇴고(교정) 및 확정
1999년 11월 10일 : 11월 정기 당회에 상정, 확정
1999년 12월 30일 : 교재 발간, 사용

4 교재편찬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현재 각 부서에서 사용중인 교재 현황은 토의 내용 교재분과 편 참조(123면)
- 2) 현재 총회에서 발간하는 공과의 연령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들. 특히 영아부, 에바다부, 사랑부와 영어예배부의 교재가 시급한 형편입니다.
- 3)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소망부의 교재도 필요합니다.
- 4) 우선 시급한 부서의 교재부터 개발, 제작토록 합니다.
- 5) 교재 편찬은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시간을 가지고 교재편찬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편찬위원회는 가능한 장기간 교체하지 않도록 합니다.
- 6) 편찬위원회는 교육연구소의 조직을 개편하여 교육연구소 내에 둡니다.
- 7) 교재 편찬이 완료되기 전까지 교재 사용 및 승인은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합니다.

2. 제안 계획

- 1) 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 교육연구소의 조직을 개편하여 교재편찬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합니다.
- 2) 모임 및 보고 / 교재편찬위원회는 매월 정기 월례회의를 갖고 교재편찬의 상황을 살피며 이를 당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 2) 일정 / 1999년 10월 30일 : 교재 편찬위원회 구성
2000년 06월 30일 : 영아부, 에바다부, 사랑부, 영어예배부 임시 교재 확정, 사용
2001년 06월 30일 : 영아부, 에바다부, 사랑부, 영어예배부 교재 편찬
2002년 12월 30일 : 대학부, 청년1부, 청년2부~소망부의 교재 편찬
2003년 12월 30일 : 중등부, 고등부 교재 편찬
2004년 12월 30일 :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교재 편찬

5 교사 양성을 위한 방안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교사양성부는 실제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내용, 기간, 방법 등)
- 2) 교사 재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 3) 교사의 임기제, 순환제, 전문교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제안 계획

- 1) 교사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장로 3인, 교역자 3인, 안수집사 3인, 교사 3인으로 구성.
위원장과 서기(실행위원), 회계(실행위원)를 둔다.
- 2) 논의할 내용 : ① 교사양성부의 교과과정 검토 및 대안 제시
② 교사 인사 지침 마련
③ 교사재교육 지침 마련
- 3) 일정 / 1999년 11월 30일 : 세가지 안 제출
1999년 12월 30일 : 교육연구소에서 검토 확정
2000년 01월 10일 : 1월 정기 당회에 상정, 확정
2000년 03월 03일 : 새학기부터 적용

6 교회학교 예산제도의 개선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교회학교 예산의 적절한 배치와 사용을 위해 현행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교육정책 수립을 제도화 합니다.
- 2) 현재의 예산 결정 절차를 변경합니다.
- 3) 교육예산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 4) 회계 정산제도의 간소화와 예산 사용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제안 계획

- 1)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 ① 매년 9월에 전 기간(전년도 9월 ~당해년도 8월)의 사업평가를 하고 계속여부를 결정
 - ② 사업평가를 위해서 교육연구소 주관으로 공동의 워크숍을 실시한다.
 - ③ 이때 신규사업도 제안되고 채택한다.
 - ④ 워크숍의 결과를 놓고 교회 차원의 차기년도의 교육방향과 적정예산의 규모를 결정하고 예산 지침을 마련한다.
- 2) 현재 예산결정 절차 변경
[현행]
· 예산편성지침 → 각 부서 예산 편성 → 위원회별 예산 제출 → 기획위 예산 조정(당회 결정) → 각 부서 통보 → 각 부서 집행 (하향적)
[변경]

- 워크숍 개최(평가, 교육정책 수립) → 교육 예산 총액 확보(당회) → 교육방향 지침 통보 → 각 부서 예산 편성 → 위원회별 예산 제출 → 기획위 심의 조정(당회 결정) 통보 → 각 부서 집행(상, 하향적)

3) 예산 집행이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 ① 각 부서는 예산 수립시 현실적으로 작성하되 총액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② 총액한도 내에서 부서 자체에서 사업의 경중에 따라 단가를 결정한다.

4) 정산제도의 간소화와 예산 사용의 자율성

- ① 항목별 예산책정기준을 명확히 하되 목간의 운영은 부서에 자율성을 준다.
- ② 자율성을 주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하여 매년 차년도에 반영한다.
- ③ 엄격한 총액 한도제를 실시한다.

- 5) 일정 / 1999년 09월 30일 : 교회학교 예산정책 개선안 제출
1999년 10월 06일 : 당회에서 확정

7 총 교육 예산 규모의 확대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2000년을 시작하면서 향후 5년동안을 중현교회 교회학교의 부흥과 갱신을 위한 변혁의 기회로 보고 교육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천국일꾼을 키우기 위한 간절한 열망은 온 교회가 가지고 있기에 교육 예산의 확대는 가능한 일입니다.
- 3) 1999년도 교육예산은 총 예산의 8.83%입니다.

2. 제안 계획

- 1) 2000년도부터 교육 예산 총액을 증액한다.
- 2) 2000년을 12.5%로 시작하여 매년 2.5%씩 증액한다.
2000년 12.5%, 2001년 15%, 2002년 17.5%, 2003년 20%, 2004년 22.5%로 한다.
- 3) 증액된 예산은 교육환경 조성(교사 양성, 교육보조 자료 구입, 멀티미디어 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8 효과적인 교육공간을 위한 방안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현재의 교육 공간을 전면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2) 제1, 제2 교육관을 한 교육 공간으로 보고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 3) 특히 제2교육관을 증축을 하는 시점에서 정확한 용도와 배치를 고려하여 구조를 배열해야 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

2. 제안 계획

- 1) 소위원회 구성 / 교회 내 전문가(건축, 인테리어)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1교육관의 공간을 모두 재배치하고, 제2교육관의 내부 설계를 용도에 맞추어 재 구성한다.
- 3) 일정 / 1999년 10월 30일 : 공간 활용방안제출
 1999년 11월 30일 : 검토후 당회 제출
 1999년 12월 30일 : 기획안대로 제2교육관 건축
 2000년 01월~06월 : 제1교육관 부분별로 재 배치

9 필요한 기자재 구입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교육 기자재를 꼭 사용해야 하는 부서가 대화 부족과 행정 처리 미숙,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 기자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2) 예산 항목이 없다면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2. 제안 계획

- 1) 필요한 기자재 / 실물 환등기 3대, 액정 프로젝터 2대(현재 사용가능 3대 있음)
- 2) 사용 부서 / 영아부~청년1부
- 3) 예산 / 3,800만원
 실물환등기 1,800만원(600만원×3대=1,800만원)
 액정 프로젝터 2,000만원 (1,000만원×2대=2,000만원)
- 4) 일정 / 1999년 10월 06일 : 10월 정기 당회에 상정

10 멀티미디어 시범부서 선정

1. 제안 설명 및 방향

- 1) 이는 외면할 수 없는 추세로서, 신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적 대비라는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 2) 본질과 형식이 호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멀티미디어 사용은 교육 효과를 증대할 것이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기보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 3) 교회학교 중 2개 부서 정도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완급을 조정한다.

2. 제안 계획

- 1) 시범부서를 정한다. (소년부 및 기타 1개 부서)
- 2) 기간 /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
- 3) 필요한 기자재를 적극 지원한다.
- 4) 별도 서식에 의거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1 <교회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1. 제안 설명 및 방향

차제에 2000년에 들어서면서 증현교회 교회교육의 일대 변혁을 위하여 <교회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 교육 전반적인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육의 장을 여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실천을 위한 단계별 제안

제안 내용	단기		중기			장기	
	99. 9	99.12	2000	2001	2002	2003	2004
1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확정	→	→	→				
2 교육위원회 조직 개편	→	→					
3 각부서 새가족부(신입부) 교재 편찬	→	→					
4 교재편찬	→	→	→	→	→	→	→
5 교사양성을 위한 방안	→	→	→				
6 교회학교 예산제도의 개선	→	→					
7 총 교육 예산 규모의 확대	→	→					
8 효과적인 교육공간을 위한 방안	→	→	→				
9 필요한 기자재 구입	→	→					
10 멀티미디어 시범부서 선정	→	→					
11 <교회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	→					

